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없던 일로'

재배치 사업 사실상 무산... 재정 3500억 들여 현재 부지에 조성 검토
2018년 이후에나 본격화... 일각선 '더 넓은 곳 많아 시기상조' 불거져

인천시가 승기하수처리장을 현 위치에 새로 짓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승기하수처리장 이전을 위해 인근 남동유수지 등을 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이전 재배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연구 동종동에 위치한 승기하수처리장은 남구·연수구·남동구 등 3개 구에서 배출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이 시설은 1995년 준공해 사용한 지 20

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됐고, 남동인터스파크 폐수 유입으로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를 넘어 심한 악취까지 더해져 재정비가 시급한 상태다.

시는 최근 승기하수처리장 재배치를 위해 남동유수지를 이전 후보지로 정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가졌으나 저어새 서식지 훼손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가 적극 반대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전이 아닌 현 부지에 새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하로 건설하면 악취 발생이 줄어들 주민 민원

도 감소할 것이라 판단에서다. 재원 조달은 민간 자본보다 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시는 하수처리장을 새로 건설하는 데 3천500억 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행정절차로 2~3년이 소요돼 실제 재정 투입은 2018년 이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시가 승기하수처리장 건설을 재정 투입으로 검토하는 것은 2018년까지 채무비율을 21.2%로 낮추고, 재정건전화 '정상' 단계로 복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때 재정성 여력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시 내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얘기가 많다. 30년이 넘는 가좌하수처리장과 서창 및 송도 인구 증

가로 인한 만수하수처리장, 송도하수처리장 등도 줄줄이 다시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투입해야 할 사업비만 6천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을지연습 기간 중 유정복 시장과 실·국장이 모여 '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승기하수처리장을 현 부지에 건설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후보지를 찾는지와 재정 투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사업 부지와 개발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며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이 다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역대 두 번째 한국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회 뽑힌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삼성생명 코치)이 18일 오후(현지시간) 메인 프레젠테이션(MPC)내 대한체육회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과정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출신 '탁구신동' IOC 선수위원 됐다

유승민, 한국인 두 번째로 뽑혀

어린 시절 인천도화초등학교에서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키웠던 '탁구신동' 유승민(34)삼성생명 코치가 한국인 두 번째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됐다.

유승민은 지난 19일(한국시간) 리우 올림픽 선수촌 내 프레시룸에서 발표한 선수위원 투표 결과에서 후보자 23명 중 2위로 선출돼 2024년까지 8년 동안 그 역할을 수행한다.

유승민은 인천과 인연이 매우 깊다. 여느 아이들이 젓가락을 먼저 잡을 나이인 여섯 살 때 유승민은 외삼촌이 운영하는 탁구장에서 라켓을 잡았다.

초교 2학년 때는 탁구 명문 초교인 인천도화초교로 전학하면서 본격적인 탁구 인생 길로 들어섰다.

유승민은 초교 2학년 때부터 5~6학년 선배를 능가하는 실력을 인정받으며 '탁구 신동'으로 불렸다. 4학년 때 학년별 전국대회를 휩쓸었고, 5학년 때는 6학년 선배를 제치고 전국대회 개인전 전 관왕을 차지하는 등 날달랐다.

초교 5학년을 마칠 무렵 가정 형

편이 어려워 전학을 가면 더 이상 인천을 연구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그런 그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결승에서 당시 세계랭킹 4위였던 중국의 왕하오를 세트스코어 4-2로 꺾고 1988년 서울 올림픽(유남규·양영자·현정화) 이후 16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렇게 바라던 금메달을 목에 건 유승민은 2014년 6월 현역 은퇴를 선언했고, 현재는 삼성생명 탁구단에서 코치로 활동하며 후학을 키우고 있다.

유승민을 어린 때부터 옆에서 지켜봤던 정삼목 인천시탁구협회 부회장은 "(유)승민이는 어린 때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아 당시 여러 실업팀에서 영입을 생각했을 정도"라며 "탁구 실력만큼이나 IOC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잘해 낼 것"이라고 칭찬했다.

그는 "지금도 인천과 왕래가 많은 만큼 인천시도 유승민과 손을 잡고 다양한 탁구 프로그램을 통한 꿈나무 육성 및 탁구 활성화 등으로 인천 탁구 저변 확대에 매진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최윤탁 기자 cyt@kihoilbo.co.kr



태극남자 금빛 미소 20일(이하 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바하 카리오카 경기장3에서 열린 2016 리우 올림픽 태권도 여자 -67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오혜리가 메달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왼쪽). 21일에는 116년 만에 부활한 여자 골프에서 박인비가 금메달을 획득, 시상식에서 메달을 깨우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교육감 내달 1일 법정에 설까 시교육청 고위직·측근 등 첫 공판

검찰 소환임박·사건 병합 가능성도

검찰이 이창연 인천시교육감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본보 8월 19일자 1·3·19면 보도>한 가운데 이미 구속 기소된 시교육청 고위직과 이 교육감 측근들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 달 1일로 잡히면서 이 교육감과의 연관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미 기소된 3명과 이 교육감이 한자리에 서게 될지도 관심사다.

21일 인천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범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교육청 간부 P(58·3급)씨, 이 교육감 측근 L(62)씨와 또 다른 L(58)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이 9월 1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들과 이 교육감은 문성학원(문일영 고·한국문화콘텐츠고) 이전과 관련한 뇌물을 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얼마 전 간부회의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법정에서 검찰은 이들이 건네받은 3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심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이 돈이 지방선거 당시 선거자금 등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또 이 돈을 마련한 Y건설사 K(57)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어 이 교육감이 뇌물 수수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P씨와 두 L씨의 변호는 법무법인 다카이온, 신천 등이 맡았으며 시교육청 고문

변호사인 A씨도 선임계를 냈다가 지난 19일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소환 조사 여부,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이 교육감 소환 임박설"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시교육청 측은 "24일까지 이 교육감이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뿐 아니라 시교육청 현 집행부, 지방선거 관계자 등도 검찰의 소환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검찰이 사건을 병합해 이 교육감과 측근 등을 같은 법정에서 세우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 INSIDE	경제구역 인센티브 국내기업까지 확대 적용 ▶ 7
	월요일에 만나는 예술인 - 박소봉 무용가 ▶ 13
	큰 나무, 큰 사람 10 강화도 사거리 탕자나무 ▶ 17

경기도의회
www.ggc.go.kr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행복시대를 경기도의회가 열어가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고 싶어 하는 꿈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희망
그 꿈과 희망을 나누어 주는 따뜻하고! 희망찬! 멋진!
제9대 하반기 경기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과기원 통폐합은 경기 과학기술 발전 외면한 처사”

노사협의회 대표단, 도의회에 재검토 요청 호소문 전달 기술개발·제약 산업 등 육성... 원점에서 재검토 주장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의 통폐합 반대 입장을 경기도의회에 전달했다.

경기과학기술원 임직원 등 노사협의회 대표단으로 이뤄진 50여 명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의 통폐합 반대 의견을 호소문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더불어민주당 박승원(광명3)대표 의원에 제출했다.

경기과학기술원은 호소문을 통해 “경기과학기술원은 지난 5년간 국비 사업 500억 원 유치, 1천여 개 국내 기업에 1천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도내 기업 장비 활용 지원 23만 건, 서울·부산·대전의 과학기술 전담기관 롤모델 등 과학 및 산업 분야 기술개발 지원, 의료·바이오·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경기도의 과

학기술과 우리 과기원 근로자 130명의 운명을 정치적인 논리로 좌지우지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기관의 중복 기능 해소, 예산 절감을 이유로 경제 관련 공공기관인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영어마을,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수원시 이관 등 통폐합 대상기관 5곳을 최종 선정했다.

도의회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과학기술원을, 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영어마을을 각각 흡수하고,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공동

지분(경기도 60%, 수원시 40%)이 있는 수원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경기과학기술원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는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은 경기도의 과학기술 외면에 대한 현 주소를 보여 주는 것으로, 왜곡된 공공기관 통폐합이 도 과학기술 정책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외면하는 이번 통폐합을 도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박 대표의원은 “경기과학기술원 임직원과 노사협의회 대표단의 과학기술 중요성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과학기술을 외면하지 않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과학기술원은 앞으로 남경필 지사와 새누리당 최호(평택1) 대표의원도 만나 통폐합 의견 반대 호소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양정영 기자 camp@khihoilbo.co.kr

기술~지식 예비창업자 지원 수원시, 31일까지 참가자 모집

수원시창업지원센터는 31일까지 ‘2016 수원 창업 아이디어 오디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지역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하며, 최종 선정일인 9월 21일 기준 개인사업 등록 및 법인 설립 3년 이내 기업의 창업자도 가능하다.

또 기획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존에 수상한 아이디어도 지원 가능하다. 단, 학교 단위 수상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고, 지자체 이상 규모에서 수상한 아이디어는 지원할 수 없다.

참가 분야는 기술 및 지식서비스 창업 분야와 사회적 기업 창업 분야로 각각 구분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31일까지 수원 창업 아이디어 오디션 홈페이지(www.suwonstartup.kr)에 회원가입 후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된다.

다음 달 2일 예선 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달 21일 2차 예선과 본선을 거쳐 우수작을 선정한다.

종합대상은 수원시장상과 함께 상금 500만 원을 받으며 최우수상 2팀, 우수상 2팀, 장려상 5팀도 각각 다른 기관 상장과 상금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창업지원센터(☎070-4762-4031)에 문의하면 안내된다.

박종대 기자 pjd@khihoilbo.co.kr

골목상권 죽이는 ‘부천 센시티’ 시민에 알린다

인천 부평구, 민관협의회 구성 반대 서명운동 등 활동 추진

인천시 부평구는 부천시 상동 복합쇼핑몰(가칭 센시티) 조성계획에 따른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최근 구청에서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한 부평구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부평구 민관협의회는 4개 정당의 인천시당 관계자와 시의원, 구의원, 상인대표, 시민단체, 구 공무원 등 총 26명으로 꾸려졌다. 김명수 부평구청장 상인회장과 조강목 부평역지하상가 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신인균(새한국)의식업중앙회 부평구지부장은 부위원장을 맡았다.

1차 간담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인천시 부평구가 4개 정당의 인천시당 관계자와 상인대표 등 ‘부천 상동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한 부평구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 진행하고 있다. <사진=부평구 제공>

센시티 입점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입점 반대 서명운동 ▶선포식 일정 ▶서명운동 추진 기간

및 방법 ▶센시티 입점 문제점에 대한 주민 홍보 ▶정기적 회의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명수 부평구청장 상인회장은 “민관이 하나돼 센시티 입점 저지를 위한 부평의 집약된 목소리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골목경제를 파탄시키는 센시티 입점 저지를 위해 부평구와 연대해 관계 법령 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중국 기자 kjk@khihoilbo.co.kr

반짝이는 도정 아이디어 1000만 원 주인공은?

최고 상금 1천만 원이 걸린 대국민 정책오디션이 열린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4회 경기도 제안창조 오디션’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도입된 후 네 번째로 열리는 제안창조오디션은 도가 제시한 주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면

사전 심사와 오디션 본선을 거쳐 시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오디션의 주제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 ▶작은 결혼식 활성화 방안 ▶가상현실로 만나는 경기도 등 3가지다.

주제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이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2일부터 10월 9일까지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의 국민행복제안 공모제안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우수 제안자에게는 1등 최고 1천만 원, 2등 600만 원, 3등 300만 원, 4등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우수 제안은 내년도 경

도, 상금 걸고 제안창조오디션 오늘부터 ‘규제 개선’ 등 접수

기도 정책에 반영한다.

이재철 도 정책기획관은 “올해 3회로 확대된 제안창조오디션을 통해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창의적인 제안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hihoilbo.co.kr

더민주 인천시당 위원장에 박남춘 남동구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남동갑·사진) 국회의원이 인천시당 위원장에 선출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연수구 평생학습관에서 열린 더민주 인천시당 대의원대회에서 박우섭 남구청장을 제치고 시당위원장에 당선됐다.

더민주 인천시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20일 인천지역에 할당된 전국대의원을 대상으로 현장투표(50%)를 실시했다. 앞서 17일과 18일에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전화 ARS투표(50%)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대의원 현장투표에서 34.19%, ARS에서 33.14%를 얻어 합계 67.33%를 얻는 데 그친 박우섭 후보(현장투표 15.81%, ARS 16.86%)를 34.66%p 차이로 앞질렀다.

신임 박남춘 시당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과 인사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핵심인사로 분류된다.

박 위원장은 “끝까지 깨끗



한 경선을 해 준 박우섭 후보에게 감사사를 표한다”며 “2017년

정권 교체와 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그리고 인천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2017년을 준비하는 인천시당은 정권 교체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지금부터 집중할 것”이라며 “대선 승리 없이 인천 발전은 없으며, 인천에서의 승리 없이 대선 승리도 없는 만큼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인천 발전을 위해서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최대한 협력하겠지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충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대선 승리 후 2018년 인천의 지방권력 교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hihoilbo.co.kr

中 특기장학생 수원 공연 성료

전통 음악·무용 선포

수원시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인계동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중국 특기장학생들의 문화 공연인 ‘한국의 별’ 행사를 열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중국 전역에서 뽑힌 특기장학생 300여 명이 전통 음악과 전통무용을 선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중자 무용단, 휴먼시타태권도시범단 등 한국 문화예술단체가 교류공연을 가졌다.

개막식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장승 중국특기장학생교육발전연맹 주석, 사서립 중국대사관 문화부 참사 등 14명의 중국 측 인사도 참석했다.

장 주석은 “수원시와 중국 특기장학생들의 문화 교류가 어느덧 2년이 지났다”며 “최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앞서 연맹 측은 지난 7월 수원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의 별 행사의 수원 연례 개최 ▶한국의 별 행사에 필요한 시설 제공 ▶양측 간 교류 확대 및 행사 규모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염 시장도 “이번 행사가 수원과 중국 간 중추적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hihoilbo.co.kr

드론, 맥주를 나르다!
불꽃, 밤마다 터지다!

최강 파워 뮤지션 9일간의 콘서트

2016 송도세계문화축제

Songdo Global Culture Festival

2016 Songdo Global Culture Festival

대한민국 맥주축제의 전설

2016. 8.26(금)~9.3(토) 9일간

송도축제행사장 032.830.0605

민원 눈치보다 2년만에 입장 선화... 또다른 갈등 불당길라

승기하수처리장 원점 재검토... 인천시, 해결과제 산더미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승기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업이 2년 동안의 논의 끝에 원점으로 돌아가는 형국이다. 시는 최근 승기하수처리장을 지금의 터에 신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시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는 '민원'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 승기하수처리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2014년 12월 인천환경공단을 통해 마련한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관련 타당성 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부분 개량 방식이 아닌 전면 개량으로 승기하수처리장을 새로 짓자는 방안이다.

1995년 가동을 시작한 승기하수처리장의 시설 중 494대가 낡고, 270대가 불량이다. 슬러지 처리시설 등도 내구연한(20년)을 넘겼다. 방류수 허용기준조차 못 지키면서 악취 등의 민원이 빗발치자 '이전'이라는 대안을 내놓

은 것이다. 사업 추진 방식도 마련했다.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민간투자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승기처리장 터(23만6천294㎡)에 도시개발 사업을 벌여 얻는 이익(6천억 원 이상)으로 민간 투자비를 상쇄하는 방안이다.

지금 논의대로라면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관련 타당성 용역'은 휴지 조각이 될 공산이 크다. 그 후유증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민원'이다. 승기하수처리장 주변 동춘동 주민들은 악취 민원을 줄곧 제기해 왔다. 승기하수처리장 이전 조기 착공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하수처리장 이전을 촉구하는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자칫 연수구 주민과 이전 대상자인 남동구 주민들 간 갈등의 불초시개로 작동할 수 있다.

승기하수처리장 유입 하수는 연수구 지역 51%, 남구 22%.

이전지역 주민 반발 우려 현 부지 개발 후폭풍 예고

오염 주범 남동구 오폐수 별도 처리비도 재정부담

협오시설 앞 아파트 부지 민자 투입 될지 장담못해

나머지 27%는 남동구 지역의 오폐수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의 총질소(T-N)농도를 높이는 악취의 주범이다. 2013년 민자사업(BTL)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사업비 890억 원)을 벌이면서 남동인더스파크 인근 지역 정화조 1천여 개를 없애 생분뇨 수준인 고농도(1천~2천㎎) 질소 성분이 흘러들고 있다. 연수구 주민들은 남동구 유입 오폐수의 별도 처리를 요구할 태세다. 시는 현 부지에 하수처리장을 신축하더라도 남동구 지역 안에 폐수나 하수처리시설을 따로 건설해야



인천시 연수구 승기하수처리장이 이전 및 신설을 놓고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승기하수처리장의 침전지. 최민규 기자 cmg@kohoilbo.co.kr

하는 속제를 떠안을 수 있다.

사업 방식인 재정사업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사업비를 지하화를 전제로 3천500억 원 정도(국비 지원율 10% 포함)로 보고 있다. 하수처리장 건설 재원인 시 하수도특별회계는 만성 적자 상태다. 누적 적자액이 2014년까지 529억 원이다. 여기에 t당 하수처리비

용(583.77원)이 하수도요금(479.16원)보다 더 들어 302억 원의 적자를 봤다. 시가 승기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선 지방채 발행과 함께 하수도요금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사업 기간이나 사업성도 문제다. 재정사업은 빨라야 6~7년 정도로 민간투자 사업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다. 시는 현 터의 절반을

지하화해 하수처리장 부지로, 나머지는 도시개발 사업용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아무리 지하화해 최신 시설을 갖추더라도 코앞에 협오시설이 있는 아파트 등의 부지가 잘 팔리겠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승기하수처리장 환경개선사업이 이래저래 꼬이고 있다. 박정현 기자 hi21@kohoilbo.co.kr

강화, 고품질쌀 육성 내년 11억 여 원 투입 재배단지 1500ha 조성

인천시 강화군은 내년 사업비 11억2천500만 원을 투입해 고품질 쌀 육성단지 1천500ha를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연이은 풍작과 소비 감소로 인한 쌀 수급 불균형 심화,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 감소와 농가의 소득 보전방안으로 추진된다. 고시하카리를 재배 품종으로 선정해 강화군과 농업협, 참여 농가의 협조 및 역할 분담에 따른 철저한 이행을 담보로 한다.

군은 사업 추진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유통·마케팅·홍보 지원, 농업인 교육 및 기술 지원, 농업협에서는 들녘별 단지 지정과 구성, 참여 농가와의 재배계약, 수확 관리를 담당한다.

군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30일까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직원으로 구성된 고품질 쌀 육성단지 조성사업 지원단을 운영한다.

한편, 군은 단지 대표와 참여 농업인들이 타 지역 우수 고품질 쌀 육성단지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김화호 기자 kimho2@kohoilbo.co.kr

시·버스업계 해외연수 일정 연기

비난 여론에 연말 추진 변경 시 "노사정 연례행사일 뿐" 지역 "외유성행사 전수 조사"

인천시가 버스업계의 외유성 해외 연수(본보 8월 17일자 1면 보도)를 연기했다.

시내버스 전면 개편 후 아직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된 외유성 해외 연수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날 말 추진 예정이었던 버스업계의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을 올해 말로 미루기로 했다.

시는 당초 버스정책과장 등 공무원 2명과 버스회사 대표, 노조 관계자 등 총 46명과 약 7천500만 원의 세금으로 31일부터 9월 3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 홋카이도

로 해외 연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런 노사정 프로그램은 외국 선진 도시의 버스정책 및 모범 운영사례 비교시찰을 통해 시민 위주의 버스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버스업계의 신노사문화 정착 등을 위한다는 목적이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 인천시의회와 정지권은 물론 공무원 내부에서조차 비난 여론이 일었다.

시가 최근 42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 이후 시민 불편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개편 2주 만에 노선을 재조정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유성 해외 연수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시는 계획을 취소가 아닌

연기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시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외유성 해외여행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시비를 들여 민간 관계자들과 외유성 해외 연수를 나가는 사업이 비단 버스업계만이 아닐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외유성 해외여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수년째 재정난으로 어렵다는 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버스업계 노사가 연봉 협상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라며 "지역사회의 좋지 않은 여론이 있어 올해는 12월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ohoilbo.co.kr

인천도 에너지의 날 캠페인 동참

청라엑셀루타워 616가구 참여 오늘 전력사용 줄이기 등 활동

'불을 끄고 별을 켜다.' 제13회 에너지의 날 행사가 열린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22일 청라국제도시 청라풍림엑셀루타워 아파트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제13회 에너지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숨 쉬는 지구를 만들자'를 슬로건으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생활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청라풍림엑셀루타워 아파트 616가구가 참여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에어컨 설정 온도를 2℃ 올리고, 오후 9시부터 5분간 소등행사를 실시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 체험·교육 버스 ▶기후변화 체험버스 등을 설치해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에너지의 날'은 사상 최대의 전력소비량을 기록했던 2003년 8월 22일을 기점으로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에너지시민연대가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정해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공공기관과 기업, 학

교, 상업시설, 가정 등 각계각층에서 에너지 절약운동에 동참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ohoilbo.co.kr

김홍기의 기후만평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919년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

WITH **박인희 X 송창식**

컴백 콘서트

그리운 사랑의 기억

기타리스트 함춘호

2016. 9.25(일) 오후 7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 기호일보 주관 청라아트 제작 SHOWPLUS 예매 인터파크티켓 YES24.COM 문의 1566-6551

분단 역사 속에서 피어난 '생태계 보고' 체험

성남시의회 의정연구 모임
DMZ서 생태안보탐방 가져
대암산 습지 '용늪' 등 방문
한국전쟁 등 주제 강의·토론

성남시의회 의정연구 모임인 '한반도 평화 및 남북교류협력 포럼' 소속 의원들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인제군 소재 (새한국DMZ(비무장지대)평화생명동산에서 생태안보탐방을 실시했다.

탐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종철(도시건설위원장)회장과 지관근(당대표)·김해숙(문화복지위원장)·최승희(윤리특별위원장)·정종삼·이지영 의원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첫날 국내 람사르(국제습지보전협약) 1호로 지정된 대암산 습지 '용늪'을 찾아 금강초롱, 제비동자꽃, 멸종위기 식물인 닳꽃 등 분단의 역사 속에 보존된 생태계를 관람했다.

또 평화생명동산 정성헌 이사장의 'DMZ 생태계 보전을 통한



성남시의회 '한반도 평화 및 남북교류협력 포럼' 의원들이 19일 강원도 양구군 소재 제4땅굴 입구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hihoilbo.co.kr

평화생명동산', 정범진(겨레사랑 대표)이사의 '한국전쟁과 DMZ'라는 주제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정 이사장은 강의에서 "DMZ 일원은 민족의 아픔이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자연과 생명의 역동적인 복원이 전개되고 있는 곳"이라며

"전 세계 생태계의 보고인 DMZ는 생명과 평화의 문을 여는 인류의 가치를 영구히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튿날에는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로 유명한 '울지전망대'와 1990년 발견된 '제4땅굴'을 방문, 다시금 평화통일을 위한 안보의식을 재정립했다.

또 민간인출입통제선에 위치한 '두타연'에서는 지뢰 등 전쟁의 역사에 간혀 있던 우리나라 천연자연의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타연은 금강산으로 가는 최단거리 길목으로, 최근 민간에 개방된 자연 보존 관광지다.

박종철 의원은 "DMZ 일원은

우리 민족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이자 자연생태계가 보존된 역사의 현장"이라며 "분단의 현실인 DMZ가 현재와 미래, 세계 평화를 연결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기초의회 차원의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hihoilbo.co.kr

청탁금지법 공금증 풀어드려요

용인시 상담콜센터 운영

용인시는 다음 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감사관실에 '청탁금지법 상담콜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이 금품 등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법을 잘 몰라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콜센터에서는 직원 9명이 공직

자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관한 공금증과 법적용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시는 콜센터에 문의된 질의 내용은 빈도순, 중요도순으로 정리해 '공직자 행동매뉴얼' 제작 때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와 시민들이 법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담센터를 개설했다"며 "강도 높은 청렴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우 기자 bison88@khihoilbo.co.kr

안양시 10월 6일 '시민과 함께 원탁토론회' 개최

안양시는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안양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6월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 주제는 '건강한 가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며, 시는 원탁토론회참여 시민 200명을 9월 5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전화(☎031-8045-2340) 또는 시 홈페이지(anyang.g

o.kr),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가 역점 추진 중인 인문도시 조성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필운 시장은 "행복한 삶의 원천은 가정에 있다"며 "시민과 머리를 맞대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양=이종택 기자 jitee6151@khihoilbo.co.kr

해질녘서 동틀때까지 생명사랑 밤길걷기

검색창에 **생명사랑밤길걷기**
www.walkingovernight.com

온라인 생명사랑 캠페인 수행시 <최대 자원봉사 12시간 인정>
생명사랑밤길걷기는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38분마다 한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을 자각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감동적인 어둠을 헤치고 희망을 찾아나가는 특별한 캠페인입니다.

서울	9월 22일(금)
대전	9월 10일(토)
대구	9월 3일(토)
광주	9월 9일(금)
부산	9월 9일(금)
수원	9월 3일(토)
전주	9월 10일(토)

인천
2016.9.9(금) 6:00p.m.
문학경기장 내 보조경기장

5Km 10Km 30Km

Love Life While Walking Overnight

참가비 (미취학 무료)
5km, 10km _ 청소년 : 10,000원 성인 : 15,000원 (단체 : 10,000원)
30km _ 청소년 : 20,000원 성인 : 30,000원
* 후원금은 사실예방 활동에 쓰여 집니다.

주최_ 인천광역시교육청 www.icrfelife.or.kr 인천생명안전회 기호일보
후원_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참가신청 및 문의 ☎ 032) 438-9191
재능기부 그림: 원은희 작가 / 디자인: 한옥현 교수(숭의여대 시각디자인과)



“스타필드 하남’ 주변 도로 공사 조속 추진돼야”

윤재군 하남시의회 의장
공사장 피해 최소화 당부

하남시의회 윤재군 의장은 지난 18일 산곡2교 등 스타필드 하남 주변 도로 공사 현황을 방문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 윤 의장은 7월 초 행정사무감사 현장 점검 당시에도 개장 전까지 주변 모든 도로와 교량을 완공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날 현재까지 공사 진척 사항 등 진행 상

황을 점검한 것이다. 또 윤 의장은 9월 초 개장 전 100% 개통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통행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며 공사 관계자들과 환담을 가졌다.

윤 의장은 “지금도 출퇴근시간과 주말이면 팔당대교 인근 등 교통 정체가 심각하고, 스타필드 하남 주변이 정체되면 우회하는 차량으로 인해 시내 도로까지 모두 막히게 되므로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 달라”며 “산곡2교는 양생 정도에 따라 소형차라도 먼저 통행하

는 방안 등 최악의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비해 달라”고 하남도시공사와 하남경찰서에 요청했다.

이어 그는 스타필드 하남 측에 마무리 공사 소음 등 신장2동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과 대기업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혜택 제공 및 하남시민 취업 지원,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hihoilbo.co.kr

의정부시 청탁근절 대책 본격 시행

부시장 단장으로 추진단 구성
부패행위 1회라도 중징계 적용
내부고발 핫라인 설치 등 추진

의정부시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청렴혁신 청탁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시정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4급 이상 간부 11명으로 구성된 심의조직인 '청렴 특별추진단'의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지난달 21일 전국 최초로 구성됐으며, 전원이 다음 달 20일과 10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리더십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또 청렴 관련 범죄와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1회라도 적발될 경우 정상 참작 없이 중징계를 요구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윈드투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간 승진 억제, 각종 포상과 공무국외연수 등 모든 혜택에서 배제되며, 당해연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신분·재정 상 불이익을 받는다.

시는 이 밖에도 개인 컴퓨터 바탕화면에 '내부 고발 핫라인'을 설치해 시장과 감사담당관에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부 직원들은 청렴 기고문 릴레이 게재에 참여하게 된다.

안병용 시장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직사회 내부에 퍼져 있던 청탁, 부패, 뇌물, 향응, 선물은 이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추경·청문회 무산 위기에 '네탓만'

"野2당이 先추경 처리 반복" "與, 조선업 부실 규명 퇴색" 대치정국으로 시간만 허비

8월 임시국회가 21일로 열릴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및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모두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이날까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22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추경안을 처리한 뒤 23~24일 기획재정위원회, 24~25일 정부위원회가 각각 열기로 한 청문회도 역시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졌다. 여야는 청문회 증인 채택과 개

최 방식을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의 골자인 '선 추경, 후 청문회'와 기재·정무위의 별도 청문회 개최를 두 야당이 뒤집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추경안을 먼저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청문회를 연다는 합의문에 명백히 적힌 만큼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야당 탓이라는 논리다. 이에 맞서 두 야당은 새누리당

이 조선·해운업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청문회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퇴색시키려 하면서 추경안 처리만 고집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전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반드시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손학규·안철수 조우 국민의당 안철수(오른쪽)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21일 민주화운동의 산증인 故 박형규 목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몰러나는 김종인 대표, 대선론 불지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후보라면 개헌입장 밝혀야"

김중진 더민주 비대위 대표 퇴임회견서 개헌론 재가열

더불어민주당 김중진 비상대책 위 대표가 21일 개헌론을 다시 제기했다. 퇴임 기자회견에서다. 4·13 총선 직전인 올해 초 당 비대위 대표를 맡은 김 대표는 7개월 만인 8·27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 정당, 책임지는 정당, 안보 정당의 틀이 국민이 승리하는 길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개헌"이라며 "개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김 대표는 특히 "정당·정파를 초월한 국회 헌법개정 특위 설치를 다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개헌론을 주창해 왔던 김 대표가 입기를 마치면서 또 다시 개헌 공론화를 요구한 것은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는 소신과 함께 개헌론을 고리로 새롭개 대선판을 그려 나가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보여진다. 김 대표는 이어 "제왕적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야당은 거

수기로 전략해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국민 통합을 이루고 여야가 함께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는 대선 준비에 들어가기 전 개헌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대선후보라면 전대 직후 개헌 입장과 역할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로 마찰을 빚는 한중관계와 관련, "한중관계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와 생존문

제지만, 한중은 경제와 번영의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아직 전략적 우선순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와 관련한 정부 여당의 대응이 미흡해 실망"이라면서도 "더민주 역시 책임 있는 수권정당으로 국의 우선순위를 역사적 맥락을 따져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어 "잘못된 경제구조가 국민의 삶을 양극화의 밑에 빠뜨리고 있다. 양극화는 국민의 삶의 근본에서 시작되는 분열"이라며 "제가 강조한 경제민주화는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가치에 우선하며 국민의 첫 관심사다. 경제민주화 없는 정치적 민주화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12년만에 지구당 재소환... 기대와 우려 엇갈려

당형, 사무실 편법운영 일반화 정자법 엄격·정치 진입장벽 완화 졸대기·사당화 부정적 시각도 국회·선관위, 법개정 잇단 논의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의 지역 하부 조직인 지구당 제도가 폐지 12년 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구당 부활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선거제도개혁소위는 지난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안을 공식 의제로 다루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 1일에는 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 이달 말 관련법 개정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리는 정치관계법 통과와 함께 도입된 당원협의회 체제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현역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시군구 의원 합동사무실'을 운영하고,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변호사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내놓고 사실상 지역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각종 '눈 가리고 아웅식'의 법 위반이 일반화돼 있다. 지금까지는 지구당 부활에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정치권이 선뜻 법 개정 착수에 나서지 못했으나 거의 모든 당협이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현역 의원과 원외 위원장의 기득권 차이로 인한 진입 장벽을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이 엄격해지고 사 회분위기가 성숙하면서 과거와 같은 '돈 정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

큼 지구당을 부활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전국 253개 지역선거구에 지구당 사무실이 생기면 현재보다는 범법의 감시가 어려워지고, 유력 정치인에게는 출을 대기 위해 또 다시 돈이 몰리면서 '사당화'의 빌미를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지구당의 수입·지출 회계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인터넷에 실시간 공개하는 내용을 정치관계법에 담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지구당의 후원금 모집은 금지하는 대신 중앙선관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을 허용함으로써 중앙당이 직접 지구당을 지원하는 간접 지원 방식도 거론된다. 이 밖에 지구당 위원장은 해당 지역에서 비밀투표 방식으로 경선하고, 지구당 위원장이 총선을 포함한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의 신설도 검토 중이다. 강봉석 기자 kbs@khihoilbo.co.kr

법제처, 미안마 법령관리 역량강화 교육지원

법제처가 미안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기틀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법령관리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1일 법제처에 따르면 제정부 처장은 지난 14일 방한한 미안마 우 리 미인(U Win Myint)법무부 차관의 예상을 받고 미안마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미안마 법령관리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인 미안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각종 법령정보시스템에 대한 미안마 정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현재 운용 중인 법령심사 기준 등 매뉴얼 및 경제법제 60년사 등 한국의 법제 발전 역사에 대

한 소개도 함께 이뤄졌다. 우 위 미인 차관은 "미안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미안마 정부 내에서 법령의 활용도가 크게 증가하고 국민들이 법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면 미안마 신정부의 개혁정책 및 민주주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미안마 정부 전체가 거는 기대가 매우 크며,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미안마 법무부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역의도 중계탑

원혜영, 혁신 5대 위한 지역위원장 모임 주도

대의원 줄 세우기 타파선언 109명 위원장 동참 이끌어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사진)국회의원은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와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혁신 전대를 준비하는 지역위원장들의 모임(약칭 오더금지모임)에 109명의 원내·외 지역위원장이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원 의원 측은 따르면 오더금지

모임은 전당대회에서 당내 계파 갈등과 분란의 원인이 되는 지역 위원장에 의한 대의원 줄 세우기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2013년과 2015년에 추진된 바 있다. 이번 오더금지모임은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러진 지난 5일 예비경선일에 4선 이상 중진 의원 13명의 공동명의로 원내·외 지역위원장 전원에게 제안서를 발송하고 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오더금지모임을 주도한 원혜영

의원들은 "100명이 넘는 원내·외 지역위원장이 대의원 줄 세우기 관행의 결별을 선언했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전당대회를 통해 우리당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고 정권 교체의 희망을 쏘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윤관석, 건설사 평가에 직접 시공실적 포함토록 법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사진)국회의원은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 있어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해 평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자가 적정한 능력의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능력을 평가

하고 있는 가운데 시공능력에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건설사의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한 시공능력을 국토부가 평가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는 건설업자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건설산업의 직접시공을 권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를 통해 단단계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고 건설산업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흥복 기자 hbj@khihoilbo.co.kr

김성원, 동두천 사무소서 민원청취 첫 행사

새누리당 김성원(동두천 연천·사진)국회의원은 지난 20일 동두천시 평화로에 위치한 의원사무소에서 현장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제1차 동두천 민원의 날' 행사를 가졌다. '민원의 날'은 '지역주민의 행복한 권리를 찾는 날'이라는 주제로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불편민원, 건의사항 등을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소속 박형덕 도의원, 김승호·송홍석·정계숙 시의원이 함께 했다. 이날 시민 50여 명이 참석한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조기 건설, 신천 주변의 악취 문제, 어린이집 수도시설 개선, 문화예술공간 조성, 중학교 체육시설 소음민원, 도로교

통 신호체계 개선 등 생활 불편부터 정책제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최근 폭염과 열대야로부터 고통받으며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한전과 협력을 맺고 있는 검침협력사의 의견도 청취했다. 김성원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신속한 주민 체감형 민원 해결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며 "국회, 경기도, 동두천시 등의 집행부와 협조해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진행하고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노영석 기자 rohys@khihoilbo.co.kr

박광은, 하도급 업체 집단교섭권 행사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광은(수원정·사진)국회의원이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자와 영세업체자들이 '집단교섭권'을 통해 공동으로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이른바 을(乙)에게 집단교섭권을 보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하도급업체·가맹점주·대리점주 등은 단체를 조직해 공동으로

대기업과 협상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와 가맹사업상의 가맹점사업자, 대리점법상의 대리점업주, 대규모 유통업법상의 납품업체 등은 공동으로 협상을 해도 담합 처벌을 안받는다. 남궁진 기자 why0524@

송석준, 난임 치료 위해 유급휴가 보장키로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새·이천·사진)의원이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불임 및 난임을 치료할 경우 휴가를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1일 송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불임 및 난임 부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경우 불임이나 난임 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및 난임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며, 당해연도 최초 1회 청구 시에는 내원이 요구되는 최소 3일간의 치료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천=신승백 기자 syb@khihoilbo.co.kr

14924-5-626998

진료 내과, 뇌, 심장, 관절·척추, 장기이식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CATHOLIC KWANGDONG UNIVERSITY INTERNATIONAL ST. MARY'S HOSPITAL

인천 서구청 인근 ☎ 대표전화 1600-8291

셀프제작소서 도내 창업 아이템 반짝

경기중기청 POP-UP 경진대회 교육 참여자 아이디어 현실로 제품 완성도 높이는데 도움 돼

“셀프제작소를 찾아내 아이디어를 현실로 이룰 수 있었어요.” 지난 19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위치한 셀프제작소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들의 열정으로 가득 찼다. 이날 열린 ‘셀프제작 POP-UP 경진대회’에 참가한 6개 팀 총 10

명의 참가자들은 그동안 셀프제작소의 시제품 제작 교육에 참여했거나 직접 제품을 만들어 온 이용자들이다. 이들은 노력과 열정이 들어간 저마다의 제품들을 제출했다. 출품작들은 비스듬히 기울어진 의자부터 만드다 만 것 같은 전선 투성의 기계부품, 팬이 달린 나무 받침 등 용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참가자들끼리도 서로의 ‘물건’을 보며 고개를 가웃거렸다.

한 참가자는 “발표하기 전까지는 무슨 물건인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접수 과정의 들뜬 분위기도 잠시, 접수가 끝나고 발표가 시작되자 셀프제작소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해졌다.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좌석의 각도를 높인 의자, 환풍기에 꽃음으로써 먼지와 냄새를 차단시키는 제품, 드론의 날개를 바퀴로도 활용 가능하도록 해 에너지 활용도를 높인 신개념 드론 등

출품작이 소개될 때마다 참가자들은 날카로운 지적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로에 대한 격려 또한 잊지 않았다. 이날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출품작은 갓 창업한 베베네코의 ‘고양이 원목 화장실’로, 좁은 구멍과 상자를 좋아하는 고양이의 특성을 이용했다. 원목상자 내 1층에는 배변용 모래를 설치하고 2층에는 1층에서 묻은 모래를 털 수 있는 발판을 설치한 아이디어 제품이었다. 반려동물 관련 제품을 만들어 내는 베베네코는 결국 1위의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셀프제작소에서 열린 ‘POP-UP 경진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자신의 제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중기청 제공>

영예를 안았다. 베베네코의 김수연(25·여)씨는 “셀프제작소를 통한 정교한 가공으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어 창업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셀프제작소를 꾸준히 이용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중기청은 이 같은 경진대회를 꾸준히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오는 10월과 11월에도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12월에는 그동안 수상자들

을 모아 왕중왕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셀프제작소를 통해 예비 창업자나 창업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영 기자 camp@khihoilbo.co.kr

화장품으로 베트남 여심공략

호찌민 국제미용박람회서 증기 17곳 357억 상담실적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미용산업협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베트남 호찌민 사이공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베트남 국제미용박람회(VIETBEAUTY 2016)’에 17개 국내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한국관을 파견해 3천200만 달러(357억 원)의 상담실적을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를 설치한 한국 기업들은 320건의 구매상담을 진행했다. 한 기업의 경우 이례적으로 처음 만난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30만 달러 상당의 발주 주문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베트남은 정부가 지난 3월 5개년 사회경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2천100달러 수준인 1인당 GDP를 2020년까지 3천5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35세 미만의 젊은 세대 비율이 전체의 60%에

달해 사회 진출 여성들의 화장품, 성형, 스킨케어 등 미용산업 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 박람회 참가한 미백화장품 및 미용기기 제조업체 이한수 대표는 “처음 개최되는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참가를 결정했다”며 “우리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첫 단추를 잘 꿰어 베트남 시장의 젊은 세대를 공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국미용산업협회 김덕성 회장은 “베트남 시장은 아직 비즈니스 적 성숙도가 낮은 시장임에는 틀림 없지만 시장 잠재력,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미성숙 시장이라는 점이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더 나은 기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지난 1월 현지에서 진출한 중기중앙회 베트남사무소가 현지 바이어 발굴·매칭 및 미용산업 관련 유관단체 간담 등을 주선해 참가업체들의 만족도를 더욱 높였다. 박노훈 기자 nhp@khihoilbo.co.kr

남한강 보이는 교통·교육 1번지

■ 비아트리스 여주

복선철·고속도로 개통 예정 여주시청·대형 병원 인접



남한강의 프리미엄 조망을 소유할 수 있는 여주시 현암동 및 오학동 일대에 비아트리스 디자인 하우스 총 128가구가 분양 중이다.

㈜르메중에서 시행·시공하는 비아트리스는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개념의 복합 아파트 형태로 현암동 309-6번지 일원 3개 동 48가구와 오학동 279-3 1번지 일원 5개 동 80가구, 총 128가구로 구성돼 있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2.79㎡ 64실이 각 동마다 2~5층에,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72.11㎡로 각 동마다 6~9층에 64가구가 해당된다.

특히 최상층 16가구에는 다락 67.33㎡가 복층 구조로 추가돼 있는 점이 눈에 띄어볼 만하다. 이곳은 여주·성남 복선전철이 9월 개통 예정이고, 11월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여주 진입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법무단지 인근에 있는 현암동과 오학동은 여주의 신축 주거중심지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또 여주시청과 대형 병원, 대형 마트, 교육시설, 공원 등이 인접해 남한강 청정 지역에 편리한 생활인프라까지 더해져 교통, 교육, 환경 등 네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어 누구나라도 탐내는 곳이기도 하다. 비아트리스는 기존 공동주택의 단순한 이미지를 깨고 모던 스타일을 새롭게 구성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설계와 컬러의 조화가 아주 잘 이뤄진 디자인 하우스다. 모든 가구를 3베이 구조로 숨은 공간을 활용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했으며, 가구 내 곳곳에 공간마다 다양한 컬러를 디자인해 더욱 안락한 분위기와 함께 세련미가 강조됐다. 빌트인 시설 또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비롯해 분박이강과 도마 살균기, 전동 빨래건조

기, 가구별 무인택배함, 서브주방에는 하이렌지, 드럼세탁기 또는 광파오븐렌지가 기본으로 설치되며, 선택 품목으로 양문형냉장고, 김치냉장고, 음식물처리기, 비데 등이 구성됐다. 계약 조건 또한 수요자들에게 매우 안전한 구조를 갖고 있다. (주)생보부동산신탁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신축공사에서 공사 자금까지 체계적이고 안전한 자금 관리를 수행해 고객들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계약금 10%, 중도금 20%, 나머지 70%는 준공 시 입주와 함께 잔금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분양금액의 60%는 계약자의 필요에 따라 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의 안전성도 보장받을 수 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hihoilbo.co.kr

오직 남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남구

i-미디어시티 공감대 확산을 위한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미디어 판놀이 인천은 요지경 ‘집나간 남구를 찾아라’

- 1회 2016.8.27(토) 19:00
- 2회 2016.8.28(일) 15:00
- 3회 2016.8.28(일) 18:00

장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문의 남구청 미디어 홍보실 (☎880-4094, 7976)

공연내용 미디어영상과 마당예술이 조화된 공연으로 샌드아트, 민요, 판소리, 타악 비보이 그룹 등이 참여한 생동감 있는 판놀이 공연

인천광역시 남구 NAM-GU, INCHEON METROPOLITAN CITY

한샘, 30가지 신혼집 미리 보고 집 꾸미기 시행착오 줄이세요

한샘은 내년 상반기까지 부부의 개성과 취향을 반영한 30개의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제안하는 ‘2017 미리 보는 신혼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한샘은 ‘미리 보는 신혼집’에서 ‘대화가 넘치는 거실’, ‘카เฟ่처럼 감각적인 거실’, ‘효율적인 수납이 가능한 침실’, ‘외출이 즐거워지는

드레스룸’ 등 총 30개의 공간을 선보인다. 매장에서는 전문코디네이터와 3D 시뮬레이션 상담 서비스(큐브, Cube)를 활용해 가상으로 가구를 설치해 보면서 집 꾸미기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소파 8종, 불

박이장 2종, 식탁 4종, 거실장 3종 등 인기 신혼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이탈리아 마스트로 토사의 가족을 사용한 칼리아한샘 소파의 경우 최대 54만 원 할인하고, 레노거실장과 함께 구매하면 거실장을 10만 원 할인한다. 또 ‘컴포트아이’ 매트리스를 구입하면 ‘루나 침대’ 또는 ‘폴린 애시 침대’ 등 침대 3종을 무료로 증정한다. 김재혁 기자 kjh@khihoilbo.co.kr

쏙쏙 경제상식

코픽스(COFIX)

‘코픽스(COFIX:Cost of Funds Index)’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을 측정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다. 국내 8개 주요 시중은행들이 제공하는 자금 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 산출된다.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이 제공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RP,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등의 자금 조달 총액 및 가중 평균 금리를 종합해 신규 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 단기 코픽스를 산출해 이를 매월 15일 공시하고 있다. 코픽스는 2010년 도입돼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주된 준

거금리로 활용되고 있다. 통상 은행의 여신 금리는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에 차입자의 신용 상태, 차입 기간, 담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기존 가계대출의 준거금리로 주로 이용되던 CD 금리가 총자금 조달액 대비 CD의 비중 하락, 시장 실제 금리와의 괴리 발생 등으로 은행의 실제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코픽스가 개발·도입됐다. 지난 16일 공시된 잔액 기준 코픽스는 사상 최저치인 1.69%를 기록하면서 55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가장 낮은 1.32%로 나타났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픽스의 하락으로 이에 연동된 대출상품의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가계대출 추이에 대한 정책당국의 경계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한국은행 인천본부 제공>

오늘 Lotto <제716회>

2 6 13 16 29 30 + 21

당첨자	12명
1등	6개 숫자 일치 1,358,752,157원
2등	5개 숫자 일치 +보너스 숫자 77,642,981원
3등	5개 숫자 일치 1,559,096원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에 입주·세제 인센티브

산업부 장관 주재 인턴 간담회에서 관련 제도 개선안 마련 예고 법인세 감면 등 외국업체 상응하는 혜택으로 투자 유치 유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정했던 각종 인센티브가 국내 기업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투자를 원하는 외국 기업의 경우 국내 기업과 협력하길 원하는 데, 경제자유구역에는 국내 기업에 대한 혜택이 없어 투자유치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1일 인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턴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자유구역 민간 합동 간담회’에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 청장들은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이영근 인턴경제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국내 기업에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과 합작 투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기업으로서는 별다른 메리트가 없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길 꺼리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법인세 감면 외에 50년간 국공유지 임대와 수도권 규제 완화, 노동 규제 특례(무급휴일, 파견근로 등)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국내 기업에는 이런 혜택이 전혀 없다.

산업부는 2013년 일부 국내 기업도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기획재정부 등 세제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데 실패해 번번이 법 개정이 무산됐다.

주 장관은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 입주와 고용 창출,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 등 국가 경제에 일조해 온 것은 맞지만 개발 부진으로 그 성과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국무조정실, 기재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인턴경제청은 전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혜택을 보는 국내 기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특혜 시비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때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입지 규제 등을 풀고 세제 혜택을 주는 식이다.

정부는 31일 인턴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예정인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권태 기자 jus216@khihoilbo.co.kr



캐비어·스네일·홍삼 함유... ‘꿀피부’ 활짝

한스킨 ‘골드에센스...’ 출시

셀트리온스킨케어의 공식 브랜드 한스킨이 피부 탄력과 보습, 진정 등의 고민을 덜 수 있는 ‘골드에센스 시트 마스크’ 3종을 출시했다.

<사진>
이번에 출시된 시트 마스크 3종은 피부를 맑고 탄력 있게 관리해주는 골드 에센스와 피부 보습에 효과적인 캐비어와 스네일, 홍삼 등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했다. 특히 캐비어 성분이 함유된 시트

마스크는 피부 유·수분 밸런스 조절과 보습에 효과적인 베타글루칸과 폴라켄 등이 함유됐다는 기업체 측 설명이다.

또 스네일은 피부의 단백질과 유사한 달팽이 점액 여과물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준다.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들어간 시트 마스크는 피부 방어막을 높여 주고 영양을 채워 준다.

골드 에센스 시트 마스크의 가격은 각각 1천 원이다.

지권태 기자 jus216@khihoilbo.co.kr

소상공인 맞춤형 무료 교육의 장

중기중앙회, 인천 첫 ‘골목의 CEO 아카데미’ 개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골목의 CEO’를 위한 아카데미를 연다.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나 임원만을 대상으로 수십만 원의 참가비를 받고 운영되는 어느 CEO 아카데미와 달리 ‘골목의 CEO 아카데미’는 100% 수요자 맞춤형 무료 교육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1일 중기중앙회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남구 등 문화창작지대 강연장에서 지역 소상공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소상공인 경영혁신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분부는 다음 달 ‘미추홀 소상공인 아카데미’를 본격 개설하고, 연간 5차례 내외의 경영교육을 격월로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분부는 빵집, 떡볶이집, 꽃집, 학원, 편의점 등 지역 소상공인의 교육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쉽고 유익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적은 인원(1~5인 이하)으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사업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강해 그동안 놓치고 지나간 정부 정책과 시책, 개정 법률(안) 등 전문적 정보 제공과 함께 변화된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강좌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전략, 자영업 트렌드와 향후 전망, SNS 홍보 마케팅 활용법, 다 지역 소상공인의 성공 사례, 상가법과 임차 상인의 권리, 스피치와 이미지 메이킹 등 경영 노하우에서부터 마

케팅, 세무, 법률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이를 통해 16만 명이 넘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능력 향상과 자생력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지역분부는 내다봤다.

올해 예산 1천여만 원은 인천시와 지역분부가 7대 3의 비율로 매칭해 마련했다. 하지만 내년과 그 이후에도 지역 소상공인에게 유익한 배움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관악구의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와 같이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원 인천지역본부장은 “시와 기초지자체 등의 관심과 지원으로 미추홀 소상공인 아카데미가 소상공인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는 역할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hihoilbo.co.kr



금어기 이후 첫 꽃게 맞보세요 21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햇꽃게를 소개하고 있다. 금어기 이후 서해 주위 항구에서 여획한 이들 ‘가을 햇꽃게’와 ‘유지방 활꽃게’는 이달 31일까지 100g당 각 1,280원과 1,480원에 판매된다. /연합뉴스

항만공, 대문목재 등 3개社 자금·기술 경영 컨설팅 제공

인천항만공사는 상생 혁신 설비 자금 지원 기업으로 대문목재와 영

도목재, 진성산업 등 총 3개 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된 3개 사는 공사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한 재원을 활용해 설비자금 1천만 원과 설비 도입에 따른 기술경영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는다.

공사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 사업은 협력기업들의 수요조사와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실질적인 시설 개선, 장비 구입 등 최신 물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hihoilbo.co.kr

인천경제청, UAE 국제 부동산 박람회 참가

2016 두바이 시티스케이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달 6~8일 사흘간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KOTRA)와 공동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국제 부동산 박람회 ‘2016 두바이 시티스케이프’에 참가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박람회에 ‘코리아 경제자유구역(KFEZ) 홍보관’을 설치해 부스를 찾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개발 프로젝트 홍보와 투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두바이 시티스케이프는 대회 3만여 명 이상의 전 세계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리는 세계 최대 규모

의 부동산 투자 박람회다.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활동에 나선 이영근 인천경제청장도 이 기간 두바이에 머물며 글로벌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IFEZ에 대한 투자 유치(IR)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행사 기간인 7일에 박람회를 찾은 유력한 잠재적 투자자 60명을 별도로 초청해 투자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박람회를 통해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IFEZ가 갖는 지리적 강점과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로서의 위상을 적극 홍보해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지권태 기자 jus216@khihoilbo.co.kr

인천시 내달 9~11일 송도컨벤시아 ‘코리아 뷰티&코스메틱쇼’

인천시는 다음 달 9~11일 사흘간 송도컨벤시아에서 ‘2016 코리아 뷰티 앤 코스메틱쇼’를 연다.

시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화장품, 네일, 피부관리 등 미용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산업도 소개한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 등이 지원하는 인천지역 화장품 제조업체와 인천 화장품 공동 브랜드 ‘어울’ 등도 참여한다.

시는 수출상담회와 중국 진출 설명회 등이 함께 열리는 이번 행사 가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지역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현경 기자 cho@khihoilbo.co.kr

자연은 소중한 우리의 재산!

푸른산 맑은물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
 우리가 파괴한 환경은 사랑스런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읍시다.

삼 안

동네방네

오늘 봉오대로~방화로8차로 개통

부천시 고강동 봉오대로와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방화로를 잇는 왕복 8차로 도로가 22일 오후 4시 전편 개통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엔 개통되는 부천 구간 도로는 270m, 서울 구간은 960m 등 총 1.23km 구간이다. 공사는 8.27억 원을 들여 2010년 9월 시작해 6년 여간을 거쳐 개통하게 됐다.

시는 22일 오전 10시 봉오대로 삼거리에서 김만수 시장과 국회의원, 시·도 의원, 도로 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 개통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hihoilbo.co.kr

광주시민 도자기 체험교실 운영

광주시는 광주왕실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도자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 도자기 체험교실'을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광주시 도예명인들의 도자기 제작 도움으로 물레를 돌리며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이번 체험교실은 평일 곤지암도자기공원, 주말 중대불빛공원(27~28일), 팔당물안개공원(9월 3~4일), 청성공원(9월 10~11일)에서 펼쳐진다. 행사 접수는 평일엔 전화로, 주말에는 행사장을 방문해 현장 접수하면 된다.

광주=박정호 기자 pcg@khihoilbo.co.kr

의정부시 '문 열고 냉방' 등 단속

의정부시는 오는 26일까지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는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건물 실내온도를 28℃ 이상으로 유지하되 의료기관, 교육시설, 무더위쉼터, 대중교통시설, 민원실 등 일부 시설은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장은 문을 닫고 냉방행위를 하고, 실내 온도를 26℃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매장, 점포 등에서 출입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성남시 고령친화체험관 25일 포럼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오는 25일 체험관 1층 대강당에서 제10회 K-시니어버니트 조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호창 디자인이즈 대표가 '고령친화용품 개발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개념과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 고령친화제품 개발에 필요한 유니버설디자인 프로세스 및 적용 사례에 대해 소개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나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hihoilbo.co.kr

안성시보건의료 영양교육 신청접수

안성시보건의료는 다음 달 2일까지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영양 섭취가 취약한 임신부와 영·유아의 영양 불균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준중위소득 80%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양교육과 함께 생애주기별 필수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보충식품을 월 최대 2회까지 제공받게 된다. 문의: 안성시보건의료모자보건팀(☎031-678-5913, 5358)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hihoilbo.co.kr

올 가을 트레킹은 DMZ에서... 통일 기원하는 발도장 남겨요

내달 24일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오늘부터 선착순 접수 고양 원마운트~행주산성 11.5km 구간... 상품 증정 이벤트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관광공사는 다음 달 24일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걷는 '평화누리길 걷기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고양 원마운트에서 행주산성까지 11.5km 구간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가을속 속 피어나는 평화누리길'이라는 주제로 초급

중급 2개 코스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초급 코스는 원마운트 이벤트광장을 출발해 선인장전시관~초화원을 거쳐 다시 돌아오는 5km 구간이다. 중급 코스는 원마운트 이벤트광장을 출발해 신평소초로 진입, 한강 철책로를 따라 행주산성 아래 시정연수원에 이

르는 11.5km 구간에서 펼쳐진다.

초급 코스에는 감쪽 미션을 수행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평화누리길이 좋다? 위깁맨'을, 중급 코스는 대형 낙엽이 달린 철책에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 리본을 다는 'Peace is always beautiful'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참가자들은 걸을 때마다 참가비의 일부를 DMZ 일대 환경보존 캠페인 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또 학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해 초급 코스 2시간, 중급 코스는 3시간의 봉사 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22일부

터 평화누리길 걷기대회 공식 홈페이지(www.walkyourdmz.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초급은 1천500명, 중급은 1천 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각각 5천 원, 1만5천 원이다. 문의:경기관광공사 ☎031-956-8310

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그린벨트에 주민도 야영장 설치

남양주시 추가사업자 선정 내달 19일부터 방문 접수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추가 사업자 선정 계획공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그린벨트(GB) 내 야영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할 수 있고, 실외체육시설은 GB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마을 공동, 지정 당시 거주자도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설치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도 배분계획 공고에 따라 야영장 3곳, 실외체육시설 3곳의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인 요청으로 각각 2곳씩 추가 배분받았다.

시는 추가로 배분받은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이 시민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과 GB 주민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내달 18일까지 홈페이지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9일부터 3일간 시청 건축2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590-4277)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hihoilbo.co.kr



곽상욱 오산시장이 독산성·세마대지 종합정비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서 세부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 독산성 역사교육+휴양지 활용 '관심'

시, 정비 용역 최종보고회 지역주민·전문가 의견 반영 체계적 보존·복원 방안 제시

오산시는 지난 18일 세마동 주민센터에서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종합정비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곽상욱 시장, 순정환 시의회 의장, 안민석 국회의원,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 및 관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약 150명이

참석했다.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종합정비계획 용역은 2015년 4월 착수, 현재까지 약 1년 4개월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해 개최된 착수보고회 및 현장자문위원회 회의와 학술대회, 주민설명회, 중간보고회 등 관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독산성의 진정한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존·복원 및 정비계획 수립에

주안점을 뒀다. 또 탁월한 경관과 다양한 역사적 가치를 품고 있는 독산성을 역사교육과 자연휴양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활용 방법도 제시됐으며, 독산성과 주변 지역을 연계해 올해 문화재를 통해 인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곽 시장은 "문화재청을 비롯한 자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의 많은 도움으로 종합정비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됐다"

며 "독산성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문화자원으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보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독산성과 세마대지 종합정비계획이 문화재청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독산성의 보존과 복원·정비사업이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돼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향한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산=최승례 기자 css@khihoilbo.co.kr



시흥시-농어촌공, 물왕저수지 비포장도로 정비 등 '맞춤'

시흥시가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화성수원지사와 물왕저수지 수변 생활화를 위한 물왕누리길사업 MOU를 체결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물왕누리길은 물왕저수지 비포장도로를 정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회주도로 1.2km 구간을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인도

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시는 세부 협의를 거쳐 9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공사에서 2016년부터 3년간 인공습지 등 21개 수질 개선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물왕저수지에 추진, 저수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hihoilbo.co.kr

양육 스트레스 상담으로 풀자

안산시 '아이러브맘카페' 공연·부모 교육 등 호응 영·유아 놀이프로도 풍성

안산시가 운영하는 육아전문서비스 기관인 아이러브맘카페가 영·유아를 둔 지역 부모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러브맘카페는 2013년 3월부터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설사업으로 장난감 및 도서 대여, 특별활동 프로그램 및 놀이실 운영, 전문가 상담, 부모 교육 등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사업이다.

아이러브맘카페 놀이실은 다양한 주제의 발달에 적합한 놀잇감과 그림책을 갖추고, 놀이공간을 마련해 친구들과의 교감, 부모간 양육 관련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영아와 부모 간 애착 형성 놀이, 오감 발달 놀이, 자연 탐구 놀이, 신체운동 놀이 등 영아의 전인적 발달과 부모·자녀간 유대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놀이교육 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유 상담기에는 가족문화공연 '거리 위의 빨간 모자', 한마음 가족운동회, 물놀이장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크고 작



안산 아이러브맘카페서 부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안산시 제공>

은 가족 지원 행사를 제공했다.

이러한 다양한 주제의 부모 교육과 양육 상담을 통해 육아 관련 궁금증과 양육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며, 부모 양육스트레스 검사(K-PSI)와 아동 발달검사(K-CD)를 통한 전문상담가의 정서적 지원이 큰 호응을 얻어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다.

정승자 보육정책과장은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러브맘카페를 통해 부모가 자신의 감정과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자녀를 존중받는 아이로 양육해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hihoilbo.co.kr

성남시 내달 7일까지 공유기업·단체 지정 공모 등 접수

성남시는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차 공유기업·단체 지정과 공유혁신 사업비 지원'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공유혁신 사업비 지원 대상 기업에는 최대 88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앞선 1차 공모 때 ㈜어픽스와 ㈜다날썬시음을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와 스타터멘토를 공유단체(기업) 지정과 동시에 1천20만 원의 공유혁신 사업비를 지원했다. 시민 대상 공유 아이디어도 24일부터 31일까지 접수, 시 행정예

결목할 계획이다.

공모 분야는 ▶경기 침체, 청년정착과 공유혁신 사업비 지원 ▶공공혁신 사업비 지원 대상 기업에는 최대 880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소외, 문화 프로그램 부족, 관광활성화 등 문화 관련 ▶공공서비스, 에너지 고갈, 자원 낭비 등 환경 관련 ▶교통 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 관련이다.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을 한 이력이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기업 등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hihoilbo.co.kr

의왕 예술활동 지원사업 '숲속마실' 시민 1000여 명 발길

의왕시 1인장조기기업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씨앗컴퍼니가 주관하고 경기도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지역 예술활동 지원사업인 '숲속마실'이 시민들의 호응 속에 지난 20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달 8일 오프닝 행사를 시작으로 2주 동안 주말마다 의왕시 포일동 숲속마을 수변공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문화예술의 감성을 해설했다.

숲속마실 행사는 숲으로 둘러싸인 숲속마을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맞출 수 있도록 의왕시와 계열예술대, 씨앗컴퍼니가 협력해 생활공간 주변에서 주민들과 미술작품을 함께 제작하고 전시·설치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다.

특히 환상아트 프로젝트에는 4개 작품에 어린이 80여 명이 참여해 2주 동안 작가와 함께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는 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의 1인기업과 지역주민, 젊은 아티스트들의 만남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이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윤승재 기자 ysj@khihoilbo.co.kr

월요프리즘

김성구

모던 마키아벨리언은 잘못된 길을 달리고 있다

<Modern Machiavellian>



청운대학교 대학원장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서울로 망명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외교관들의 망명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염증내지는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함께 깔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아직도 남한의 공작정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겉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 (text continues)

설계하기에는 희망이 없었을 것이다. 마키아벨리도 군주가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은 자유를 맞은 자들이라고 「군주론」에서 말하고 있다. 자유와 물질적 풍요함이 부족한 곳에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철권통치뿐인 것이다. 그러기에 김정은은 국제사회가 비난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주체사상으로 우리끼리 문쳐야 한다고 다그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 국제사회가 아무리 북한 정권과 대화를 하려 해도 그들이 속으로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일 것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하지 못한 핵폭탄, 수소폭탄을 개발해 미국과 대치하는 듯한 이미지를 인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군주의 이미지를 김정은은 정권 연장에 이용하고 싶어 할 것이다. 나이 어린 그가 정권을 오래 유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핵문제를 갖고 남한과

국제사회에 베풀 끝 전술(brinkmanship tactics)을 하고 있는 덕택이다.

지금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사드 문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북한은 여기에 올라타 정권 연장의 묘수를 찾아내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삼대에 걸쳐 일어나고 있으니 배고픈 북한 주민은 탈북을 시도하고 외교관들은 공관을 떠나고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민들에게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군주가 국가를 유지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도 국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한 번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정권을 이어받은 김정은은 관후(寬厚)한 이미지 연출을 하다가 장성택을 공개처형하고부터는 현영철과 같은 원로들을 줄줄이 숙청하고 있다. 관후한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니 공포정치가 손쉬운 때문이다. 재미가 들린 듯이 공포정치를 반복한다면 두려움은 증오로 바뀔 것이고, 결국 인민이 군주의 곁을 떠날 것이라고 마키아벨리는 말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하고 있다. 북한에서 공개되는 사진들은 김정은 옆에 군인의 모습이 보인다. 국가를 지키는 군대가 내 옆에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귀족계급이 아니라 인민의 신뢰를 얻어야 국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인민의 숫자가 많고, 그들은 지배하려는 욕망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과 소통이 안 되고 배고픔이 지속된다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마키아벨리는 그 당시 프랑스가 좋은 의사소통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칭찬한다.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꼭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짧게 공포정치를 할 수 있다던 마키아벨리의 관점에서 볼 때 김정은은 너무 멀리 가버렸다. 현대판 슈퍼 마키아벨리언이다. 이제 탈북 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 대우하느냐가 중요해 보인다. 인간은 희망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지금 달리고 있는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렸다.

서해안

토요일 밤의 열기

지난 13일 밤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본보가 주최·주관하고 경기관광공사가 후원하는 '제1회 전국 청소년 K-POP 댄스 경연대회'다. 전국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춤꾼으로서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휘하는 공연이었다.

3시간여 동안 이어진 공연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케이팝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한류의 바람을 타고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현재 케이팝의 중심에 서서 이를 이끌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케이팝을 정열적으로 즐기는 모습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는 유명 아이돌그룹이 아닌 아마추어 청소년 참가자들이 주인공인 공연이었지만 케이팝과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위력을 충분히 느끼고도 남았다. 커버댄스와 비커버댄스로 각각 부분별로 나누어 진행된 무대는 참가팀 모두가 프로 못지 않은 춤 실력을 보유한 학생들이었다.

순간 아마추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학예회 수준의 어설픈 춤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게 민망했을 정도였다.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총 20개 팀의 공연이 1개 팀씩 끝날 때마다 남은 무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함께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들도 뛰어난 실력을 갖춘 청소년들의 무대에 깊은

감명을 받은 표정이었다. 아이들이 직접 편곡한 케이팝 음악에 맞춰 군무를 이뤄 춤을 추는 아마추어 청소년들의 무대는 유명 아이돌그룹의 공연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했다. 그것은 케이팝의 미래가 밝고 성장해나가는 청소년들에게도 무한한 가능성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날 행사가 끝나고 참가팀 전원이 단체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아이들은 수상 여부를 떠나 모두 환하게 웃었다. 한 무대에 올라 경쟁을 벌였지만 이 무대 자체를 즐겼기 때문에 가능한 자세였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열적인 모습은 어느새 인기가 삶의 피로에 빠져있던 나에게 기분 좋은 자극제가 됐다.

이제 내년 대회가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이유다. <박종대 기자>

어느 기업인으로부터 얻은 황재, 비정상적 정상화

경제칼럼

서승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처우에 신경을 쓰니 직원들이 노력으로 보답했다며 '대표가 사심 없이 노력하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 온다'는 말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

또 한 가지, 얼마 전 친한 업체 사장이 공장을 새로 지어 방문을 했는데 대표 사무실의 한쪽 벽을 가득 메운 표창장이며 상패를 보고 쓴소리를 들었다. 이 중 일부와 관련이 없는 골프대회 우승패나 친목단체 표창장 등은 모두 치워 버리라고, 대표가 업무 외적 일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자랑하면 나쁜 기운이 기업 전반에 퍼지게 마련이라고. 그런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너무도 자주 봐왔다고. 필자도 '실제 기업 7가지 이유' 중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던 걸 기억한다.

한편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도 많은 쓴소리를 들었다. 그동안 원천기술을 미국이 개발하면 일본이 이를 시제품화, 고부가 가치화하고 그 후 한국은 양산 시스템을 도입해 성공했다. 휴대전화나 자동차 부품도 큰 틀에서는 그런 범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같은 신화는 통하지 않게 된 것. 무엇보다 이런 구조를 송두리째 뒤엎어 버리는 중국의 등장이 위협이 됐다.

자신은 일본을 이기는 세계 최고의 기계를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 기업의 노력 부족도 문제일 수 있지만 이들 기계 산업의 기본이 되는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체계와 규모가 일본과 우리는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것.

'정부가 지원하는 대형 R&D 국책과

제도 이미 나온 기술로 뒷북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각 기관 간에 나눠먹기 식으로 이뤄져 모델체제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나 '폼 나고 그럴듯해 보이는 기술보다 시끄러운 공단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가공기계를 깔고 다듬는 뿌리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귀에 들어왔다.

최근 일본에서는 공공적인 행사로 0.5mm의 사프심 중앙에 0.3mm 크기의 구멍을 내는 콘테스트를 했는데 '이 같은 노력이 일본 기업이 조정밀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지적에 공감했다.

또한 안전, 시공 등에 있는 산업단지들 가 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하는 물음에 '골목마다 차가 꽂 차서 다니기가 힘들더라'는 필자의 지적에 '잘 봤다. 그렇게 정부 정책의 단면을 나타내준다. 분양가가 비싸고 건폐율이 높으니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공단 조성할 때 필요한 주차공간도 같이 확보해줘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없으니 길거리가 차들로 가득차고 물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나. 그래서 공단을 피하는 기업들도 많다는 답을 들었다.

뜨거운 어느 여름날, 어느 기업인으로부터 들은 귀중한 '황재'를 통해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종합적으로 다양한 점들을 고려해야겠다는 생각과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그런 기업의 애로를 찾아 이를 개선·견디는 역할도 비정상적 정상화시키는 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본인의 일을 행하겠다고 생각이 든 하루였다.

기호일보 kihoilbo.co.kr

등록번호 인민00001 1988년 7월 20일 창간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ihoilbo, including phone numbers for various departments and subscription rates.

기호지방(畿湖地方)이란?

한반도의 중심지역을 일컫는 지방명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강원도 영서지역, 충청남북, 경북북부지역, 평안남북, 함경남북, 강원도 남부지역 포함된다. 기호지방은 흔히 경기도와 충청도를 합해 불렀는데, 경기도의 '기(畿)'자와 충청도에 있는 의림호의 '호(湖)'자에서 비롯됐다. 삼한 시대에는 마한, 통일신라시대에는 한산주(漢山州)·한주(漢州)·한양(漢陽)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고려시대에는 양주(楊州) 하다가 성종의 10도 편성으로 경기 일대를 관내도(關內道), 공주(公州) 중심의 충청남·북도 일대를 하남도(河南道)라 했으며, 1058년(문종 12)에 '경기'라는 행정구역이 창설됐다. 특히 조선시대의 도읍지가 한양으로 옮겨지면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중심을 이루는 수도권으로 성장해 왔다.

Advertisement for 'Munhwan' (문학산) featuring a swimming pool and summer activities. Includes contact info: 032-832-0135.

Advertisement for 'Jeonju' (전주) featuring a swimming pool and summer activities. Includes contact info: Tel. (032)545-3700.

Advertisement for 'Daewon Industrial' (대원실업사) featuring industrial products and services. Includes website: http://www.deawon.net and contact info: TEL_031761-4141 / HP_010-6666-8139.

원현린 칼럼



주필(執筆)

그래도 들녘에선 곡식이 영어어가고 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 내 자라나야 하는 농작물이다. 계속되는 가뭄 속에 논밭이 타들어가니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가을에 거둬 거울에 저장할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이다. 더위에 지친 생활 속에서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저 멀리 남미 브라질 리우에서 전해오는 메달 소식에 그나마 더위를 잠시 식히곤 하는 시민들이다.

흔히들 더위가 무서운가 추위가 무서운가라는 얘기를 한다. 여름 폭서시에는 차라리 추운 것이 낫다고 하고, 한겨울 혹한기에는 그와 반대로 더운 것이 낫다고 한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동장군(冬將軍)이 물러온다 하여 몸을 움츠린다. 여름 더위는 불꽃의 제왕, 열제(炎帝) 신농씨(神農氏)가 관장한다. 단연 임금제(帝)자를 쓰는 열제가 동장군보다 위대. 올 여름은 열제가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나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했다. 하여 내가 더위가 되어 봤다. 그랬더니 건달 만했다. 마음 한번 바꿨더니 더위

의 느낌 정도가 달라진다. 그렇다! 매사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래도 올 여름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덥다.

스마트폰을 열어 며칠 전 한 친구가 보내준 이혜인의 '여름일기'라는 시 한 편을 떠 올리니 조금은 위안이 된다. "아무리 더위도 덥다고 불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맘을 많이 흘리며 내가 여름이 되기로 했습니다. 일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해 아래 피어나는 삶의 기쁨 속에 여름을 더욱 사랑하며 내가 여름이 되기로 했습니다."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가 최근 "올해 7월이 세계 기상 관측을 시작한 1880년 이래 가장 무더웠던 달로 추측했다"고 발표했다. 나사는 또 2090년께면 온난화로 인해 한국에서는 겨울이 소멸할 것이라 예견하기도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기상청도 한반도 기온이 지난 100년간 1.8도 오른 데 비해 2050년까지는 그 2배인 3.2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050년 대 연 강수량도 1970~2000년 평균 대비 15.6%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도시침수 등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고된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초윤장산(趙潤張山)이라는 말이 있다. 주춧돌이 축축해지면 비가 내릴 징조이니 미리 우산을 준비하라는 뜻이다. 가뭄의 대비도 마찬가지다. 불가항력의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대비해 막을 수 있는 재난이라면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최선이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은 사후에 분석해보면, 사전대비하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예방 가능한 재난들이었다.

다음 달 7일이면 찬이슬 내려 가을이 깊어감을 알리는 백로이고 15일이면 추석이다. 아무리 가을이 길다한들 그 옛날 칠년대하이나 같으랴. 늦더위 있다한들 얼마나 가겠는가. 계절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게다. 곧 서리 내리고 단풍지고 흰 눈이 내릴 것이다.

가뭄이 오래 지속됐지만 그래도 농촌 들녘에선 곡식이 알알이 영어어가고 있다. 가을걷이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설

청와대, 우병우 사건 본질 외면해선 안 돼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청와대의 대응은 오히려 거꾸로고 생뚱맞기까지 하다.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 감싸기를 넘어서 우병우 구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선 상황이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통해 우 수석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이 도리어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화살을 돌리는 전략을 구사했다. 청와대는 "어떤 검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얼핏 들으면 이 특감의 검찰 내용 유출 의혹이 더 심각하고 큰 문제를 야기할 것처럼 읽힌다.

청와대의 이런 인식은 본말이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것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우 수석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의 해소에 있다. 엄밀히 말해 이 특감의 검찰 내용 유출 의혹은 적어도 이번 사안에서 만큼은 결과지다. 물론 청와대의 주장대로 이 특감관이 검찰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상응한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태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들의 의경 배치 특혜 논란은 차차 고사라도 처가 부동산의 넥스과의 부당거래 의혹, 가족회사인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 등은 우 수석 본인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밝혀져야 할 사안들이다. 청와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성급하고 경솔했다. 특감 제도의 취지에 비춰 특별감찰관의 검찰 결과가 청와대의 바람과 달랐을지라도 청와대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수가 지적한 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이 나라 사정라인을 컨트롤하고 검찰의 인사를 좌우하는 자리다. 의혹을 해소하려면 당연히 자리에서 물러나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런 세간의 여론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귀를 막기로 작정을 한 것인지 좀체 분간할 수가 없다. 의혹의 당사자인 우 민정수석은 국정에 더 이상 부담을 줘서 안 된다.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는 우 수석 논란이 몰고 올 민심의 역풍을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

봄은 어느날 갑자기 온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2인자라 할 태영호 공사와 그의 가족들이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고 한다. 김정은 집권 이후 최고 위급 외교관의 이탈이라는 점에서 자못 의미가 크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자녀들의 장래와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불안감이 망명을 결행한 직접적 원인으로 추정된다. 얼마 전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한 바 있고, 지난달에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한 18세 남학생이 망명을 신청했다. 바야흐로 '북한제제 이탈 도미노'가 특권층을 포함, 전방위로 번져 가는 양상이다.

김정은 독재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암시하는 전조는 최근 들어 더욱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김정은의 권력자원'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중국과 같은 '외부 후원자의 지원'도 과거보다 현저히 제한되고 있는 추세다. 올해 3월 초 우연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로 시작된 국제사회의 경제적·외교적 압박이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김정은과 엘리트층 간 결속력' 변화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금번과 같은 엘리트계층의 이탈은 통치기반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

여 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리비아에서 42년 카다피 철권통치가 무너진 결정적 계기도 엘리트층의 이탈과 국제사회의 공조

에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득권층 및 북한 주민을 김정은 개인과 분리해 접근한 전략은 시의적절하다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당분간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북한을 벗어나려는 '원심력'과 이를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구심력' 간 팽팽한 힘겨루기와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힘의 균형이 붕괴돼 원심력에 그 무게추가 실리는 순간 한반도 정세는 견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될 것이며, 이때 김정은 체제의 붕괴 여부는 '북한 주민의 저항의지' 그리고 '김정은과 군의 관계'에 의해서 결론나지 않을까 싶다. 희망적인 건 튀니지와 이집트의 혁명에서 보여지듯 군부도 결정적 순간에는 독재자를 버리고 국민의 편에 서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김정은과 군의 관계를 풀날을 대비하는 자세로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뤄 나가야 하겠다.

열린광장

이방형

8·20 완전작전은 자랑스러운 승전사



26기계화보병사단 백호대대장 중령

북한이 지난해 8월 20일 오후 4시께 연천 지역에 로케포를 발사, 우리 군은 발사한 원점지역으로 자주포 포탄 수십 발을 대응 사격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날은 북한의 기습 포격도발에 맞서 북한지역으로 10배의 대응사격을 실시해 대한민국의 안보 역사를 새로 쓴 날이며, 그 현장에서 전투지휘를 한 영광스러운 날이다. 침과대적(枕戈待敵)! 우리 대대는 2014년 K-55A1 자주포로 개편한 이후 8개월 만에 시행한 8·20 완전작전에서 정확하고 단호한 사격으로 적 추가도발 의지를 분쇄했다. 기계화보병사단 자주포 포병의 뛰어난 전투력과 우수성을 증명 한 승전사(勝戰史)인 것이다.

당시 작전은 사단장의 북부중점인 '언제, 어디서든지 적과 싸워 이기는 세계 최고의 기계화 사단' 육성성에 중점을 맞춰, 부대 운영을 전투준비와 훈련 중심으로 단순화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대대는 평소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포상을 보강하고, 사격준비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또한,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비해 간부교육과 훈련을 통해 반복 숙달했다.

이것은 작전 8·20 완전작전 당시 38도가 넘는 자주포 속에서 RAP(사거리연장탄)을 처음 사격해 보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가 부여된 북한 표적 지역에 정확하게 사격을 실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군단장도 현장 격려를 통해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롭다. 평소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여러분이 증명해 보였다"며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격려했다. 특히, 대대 장병들은 42년 만에 MDL(군사분계선) 북쪽으로는 포

탄 사격임을 인지하고도 명령에 따라 단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계 획된 표적이 아닌 임기 표적에 정확하게 사격을 실시했다.

적의 포격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항재전장정신으로 두려움 을 극복하고 오직 명령에 따라 사격을 실시한 것이다.

훈련처럼 표적이 아닌 북한 지역에 사격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상당한 긴장감을 주고 있어 긴장은 곧 실수로 이어질 수 있기 마련인데 평상시 밤낮 구분 없이 훈련해 왔던 비사격 훈련의 성과로 두려움 보다는 자신감으로 임무를 다해준 부대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고마움을 느낀다.

또, 작전 당시 간부들은 투철한 책임감과 리더십을 발휘해 초탄 발사 후 발생한 엄청난 전장소음, 날 전과 같은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시종일관 침착하고 단호하게 전투지휘하며 성공적인 작전에 크게 기여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26기계화

보병사단 예하 명품 백호대대는 8·20 완전작전이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상황 속에서도 결연한 각오로 싸워 얻은 값진 승리임을 잊지 않고 있다.

또한, 자만하지 않고 일전불사(一戰不辭) 雖死不敗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도발해 올지 모르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화된 포병대대 육성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1년이 지난 지금 가슴을 울리는 그들의 눈빛, 용기와 신념은 아직도 잊을 수 없으며, 투철한 군인정신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

8·20 완전 작전 간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성공적인 대응사격을 실시해 대한민국 안보 역사를 새롭게 장식한 우리 대대 전 장병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안·스·그·린·월·드

(주)안스그린월드는 고객에게 신뢰받고 업계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영역

- 박람회 / 축제기획 / 기획조정
공간연출 / 꽃 조형물 / 조경식재공사
실내외조경 / 관공서납품
조경유지관리 / 나라장터 쇼핑물

Tel_ 032)568-8815
Fax_ 032)715-7006
www.ahnsgreenworld.co.kr

청각장애인 보청기지원 대/폭/확/대
인천연수센터
굿모닝보청기
<청각장애인 부담료>
~차상위계층: 무료
일 반: 131,000원
(최신형 고급 보청기)
★청각장애 / 절차상담
★최신 검사장비보유★
★의료기기 등록업체★
www.인천보청기.net
862-1661
인천1호선 동춘역 4번 (버스환승: 나사렛국제병원 하차)



안방극장 스타들 무대 위 연기 '도전장'

고두심, 악극 '불효자는 읍니다' 시즌2 출연... 이종원·이유리와 호흡
김강우, 첫 연극 '햄릿-더 플레이'서 기성 배우 능가한 열연 펼쳐 호평

데뷔 44년 차의 중견 배우 고두심. 그녀의 필모그래피는 90여 편의 드라마와 영화, 연극 등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다. 온갖 악마 역으로 '국민 엄마'라는 별칭은 얻은 그가 이번에는 악극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동안 간간히 연극 무대에 섰지만, 연기와 함께 노래까지 선보이는 악극은 처음이다. 도전작은 '불효자는 읍니다' 시즌2. 고두심은 남편과 사별한 뒤 헌신적으로 아

들을 키우는 엄마 '최분이' 역을 맡았다. 고두심은 지난 18일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그동안 주로 드라마만 하다가 배우로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노래로 이어지는 뮤지컬과 달리 악극은 꼭 필요한 부분만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악극에는 고두심 외에 이종원, 이유리, 안재동 등 TV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

다. 탤런트 이종원의 경우 1993년에 가수로 데뷔한 적이 있지만, 무대 연기는 첫 도전이다. 이종원은 "노래와 무대 연기에 자신이 없어 출연 제의를 고사했다가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털어놨다. 최근 브라운관뿐만 아니라 스크린, 연극 무대 등을 넘나들며 종합무진의 활약을 펼치는 배우들이 늘고 있다. 배우들 사이에서 TV, 영화, 뮤지컬, 연극 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지는 오래됐지만 브라운관에서 주로 활동하던 배우가 연극 무대에 서기는 여전히 쉽지 않은 도전이다. 탤런트 김강우는 데뷔 15년 만에 처음으로 연극 무대에 섰다. 그는 이날 2일 막을

울린 연극 '햄릿-더 플레이'(연출 김동연)에서 주인공 '햄릿' 역을 맡았다. 첫 연극 무대임에도 그는 기성 연극배우 못지않은 발성과 호흡, 빼어난 연기를 선보이며 무대를 장악해 호평을 받고 있다. 원로 배우들도 연극 무대로 돌아오고 있다. 박근형은 얼마 전 막을 내린 연극 '아버지'에서 치매에 걸린 아버지 '앙드레' 역을 맡아 2012년 '3월의 눈' 이후 4년 만에 무대에 섰다. tv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로 인기를 끈 백일섭은 올해 5월 연극 '장수상회'로 약 23년 만에 연극 무대를 밟았다.



왼쪽부터 악극 '불효자는 읍니다' 시즌2에 도전하는 고두심과 연극 '햄릿-더 플레이'서 열연 중인 김강우.

텔레비전

프로그램 문의 OBS(032-670-5130) KBS(02-781-1800) MBC(02-780-0015) SBS(02-2113-3190) EBS(02-526-200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1	KBS 2	MBC	SBS	OBS	EBS
5	5:00 KBS 뉴스 5:10 내고향 스페셜 6:00 KBS 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5:00 여기는 리우 <복싱-주요 결승, 농구-남 결승> 6:00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6:10 영상앨범 산 6:40 걸어서 세계속으로 7:30 리우 올림픽 폐막식	5:00 2016 리우 올림픽 <남자 농구 결승> 6: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7:30 2016 리우 올림픽 폐회식	5:00 SBS 뉴스 5:10 SBS 특선 다큐멘터리 6:00 모닝와이드 <1-2부> 7:30 리우 2016 올림픽 폐회식	6:00 TV포럼 경인의 아침 6:55 OBS 전격 인터뷰 7:05 독특한 연애 뉴스 7:15 경인 톨 7:45 OBS 뉴스	5:00 EBSe 생활 영여 40 성공시대 기능한국인 6:1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30 로보카 폴리 45 뽀롱뽀롱 뽀로로
8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10:45 창사 55주년 특별기획 <육중화>		8:10 독특한 연애 뉴스 8:45 로드 다큐 <만남> 9:45 OBS 뉴스	8:00 댕댕댕 유치원 45 코코코 다코 9:00 캐니발 40 라이벌 토크 부모
10	10:00 무엇든 물어보세요 11:00 KBS 네트워크 특선 <밤상의 전설> 11:50 안녕 우리말	10:40 지구촌 뉴스 11:00 이웃집 찰스		11:00 리우 2016 특선 다큐 <리우의 영웅 그 꿈을 이루다>	11:05 드라마 극장 <달콤 도둑> 11:05 와일드 블랙박스 11:15 고수의 손맛 11:45 OBS 뉴스 <경인투데이>	10:30 한국기행 16:40 박종진 라이브쇼 20:00 TV조선 뉴스쇼 '판' 23:00 이것은 실화다
12	12:00 KBS 뉴스 1:00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1:05 KBS 네트워크 특선 <밤상의 전설> 1:55 영상앨범 산	12:0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12:00 MBC 정오 뉴스 12:20 통일전망대 1:10 100세시대 전국기행 스페셜	12:00 SBS 뉴스 12:50 특별기획 <골에서 두 번째 사랑>	12:05 연애매거진 1:05 자전적 식객	12:00 EBS 정오 뉴스 10 EIDF 2016 학교 가는 길1 14:50 직안직설 16:20 캐디남마 19:20 채널A 종합뉴스 23:00 풍문으로 들었쇼SHOW
2	2:00 2016 리우 올림픽 폐막식 하이라이트	2:00 KBS 뉴스타임 2:10 사람과 사람 3: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30 TV 유치원	2:00 키즈사이언스6 3:00 MBC 뉴스 3:10 특?특! 키즈 스크 3:55 깨미탐험대	2: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3:00 3시, 뉴스 브리핑	2:05 구르기 TV 3:00 행복 부동산 연구소 3:45 공서영의 특별한 오늘	2:35 EIDF 2016 남겨진 교실
4	4:00 4시 뉴스 집중 5:00 KBS 뉴스 5:30 동물의 세계	4:00 여유만만 5:00 수상한 휴가	4:2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 5:00 MBC 이브닝 뉴스	4:30 구르기 탐구생활 5: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목 5:30 SBS 뉴스플러스이드	4:45 OBS 뉴스 & 이슈 5:45 드라마 극장 <무자식 상팔자>	4:00 캐니발 30 코코코 다코 45 댕댕댕 유치원 5:30 로보카 폴리 45 뽀롱뽀롱 뽀로로
6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7:00 KBS 뉴스 7:35 우리말 겨루기	6:00 KBS 뉴스타임 6:20 2TV 생생정보 7: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6:10 생방송 오늘 저녁 7:15 일일 연속극 <다시 시작해> 7:55 MBC 뉴스데스크	6:05 생방송 투데이 7:20 일일 드라마 <당신의 선물>	6:55 와이드 ASIA <혀 끝으로 만나는 중국> 7:45 OBS 뉴스 M	6:00 생방송 특목! 보니 하니 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50 다문화 고부열전 스페셜
8	8:25 일일 연속극 <별나라> 9:00 KBS 뉴스	8:30 글로벌 24 8:55 수상한 휴가	8:55 일일 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 9:30 리얼스토리 논	8:00 SBS 8 뉴스 8:55 생활의 달인	8:05 오늘의 월드 뉴스 9:05 독특한 연애 뉴스 9:40 와일드 블랙박스 9:50 시크릿 X파일 인류를 만든 12가지 비밀	8:40 다큐 오늘 50 세계테마기행 9:30 EIDF 2016 내추럴 디스오더
10	10:00 가요무대 11:00 KBS 뉴스라인 11:40 2016 리우 올림픽 결산 특집	10:00 월화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11: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00 월화 특별기획 <몬스터> 11:10 MBC 스페셜	10:00 월화드라마 <닥터스> 11:10 월화드라마 <닥터스>	10:45 OBS 뉴스라인 11:05 로드 다큐 <만남>	11:15 EIDF 2016 하늘을 향한 여성, K2
12	12:40 교육희망프로젝트 배움은 놀이다 1:40 영상앨범 산	12:35 사랑의 가족	12:10 MBC 뉴스 24 12:30 스포츠 특선 1:30 TV 예술무대	12:20 나이트 라인 12:50 리우 2016 특선 다큐 <리우의 영웅 그 꿈을 이루다> 2: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2:05 OBS 일요드라마 <유나의 거리> 1:15 행복 부동산 연구소 2:00 고수의 손맛	12:35 EIDF 2016 아버지와 딸과 나

종합편성채널·케이블

종합편성채널	드라마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TBC 07:30 JTBC NEWS 아침 & 10:10 청춘시대 14:30 JTBC 뉴스 현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9:55 JTBC 뉴스를 22:50 비정성회담 ◇ TV조선 07:40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 08:40 김광일의 신통방통 16:00 윤슬기의 시사Q 18:40 박종진 라이브쇼 20:00 TV조선 뉴스쇼 '판' 23:00 이것은 실화다 ◇ 채널A 09: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10:30 시사 인사이드 14:50 직안직설 16:20 캐디남마 19:20 채널A 종합뉴스 23:00 풍문으로 들었쇼SHO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드라마 08:25 할부로 애틋하게 13:00 아기가 다섯 15:40 내 마음의 꽃비 17:10 여자의 비밀 19:40 해피투게더 시즌3 21:20 1박 2일 시즌3 ◇ MBC드라마넷 08:40 라디오스타 12:20 다시 시작해 13:45 W 18:40 박종진 라이브쇼 20:00 TV조선 뉴스쇼 '판' 20:45 무한도전 ◇ SBS플러스 09:10 그래, 그러니까 11:45 당신은 선물 13:10 오 마이 베이비 14:45 끝에서 두번째 사랑 19:30 닥터스 22:00 백중으로 3대원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CN 08:50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10 12:50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15:50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8:30 레이던트 이블 4 20:40 언스토퍼블 22:30 함정 ◇ 채널CGV 12:10 허비 첫 시동을 걸다 14:10 연가시 16:20 데모닉 18:00 나도 영화감독이다 19:20 스타워즈 1 22:00 28주 후 ◇ 스크린 11:10 출중한 여자 12:20 메트로: 마지막 탈출 15:00 보안관 17:00 토탈 리콜 19:20 백맥스 21:30 더 테러 라이브
연예·오락	스포츠	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net 07:40 M morning 13:00 MPD Music Talk 17:40 Daily Music Talk 18:30 M COUNTDOWN 20:10 Live on M 21:00 핫 더스 테이저 ◇ 코미디TV 08:20 할부로 배우하게 10:50 무한도전 15:15 마이 리틀 텔레비전 18:10 맛있는 녀석들 20:45 남과 함께 시즌2 22:05 코미디 버리고 ◇ tvN 07:30 응답하라 1994 10:20 삼시세끼 고창편 12:10 웃어피프 18:10 코미디 버리고 20:40 명단공개 23:00 싸우자 귀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N 스포츠 08:00 2016 리우올림픽 <남자농구 결승> 19:50 추계 한국 고등학교 축구 연맹전 <결승> 22:00 불야성 23:00 우리들의 교묘시 ◇ MBC 스포츠 플러스 05:10 2016 메이저리그 <일위키 vs 시애틀> 17:00 2016 메이저리그 선수별 하이라이트 22:00 야시장 23:00 메이저리그 투나잇 ◇ SBS 스포츠 05:00 리우 2016 남자축구 <결승, 브라질-독일> 17:10 리우 2016 여자배구 결승 <중국-세르비아> 22:00 키움증권배 고교교통창 3쿠션 최강자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뉴스TV 08:00 라이브 투데이 09:50 남원호의 뉴스포커스 12:40 뉴스현장 16:45 뉴스워치 20:50 뉴스 Review 22:50 투나잇 23 ◇ YTN 08:00 이슈 오늘 12:00 뉴스n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 인 16:00 뉴스Q 18:00 뉴스 통
NIB 남인천방송(채널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N 08:30 넷워킹 인천 10:00 모녀토크 행복수다 11:00 NIB 팟방 노래교실 15:30 2016 시청자 세상 19:00 NIB뉴스 20:00 TV건강과 생활 		

오늘의 운세

(김백창·수원창저명스)
靑龍山人 ☎010-5393-0338

<p>36년생 다수의 의견에 따를 것. 48년생 아랫사람들과 다름을 조심하라. 60년생 할 일이 많은데 도와주는 이가 없어 답답하다. 72년생 빈틈을 보이지 말 것. 84년생 안보다는 질을 생각하며 일할 것.</p>	<p>39년생 작은 일도 너무 가볍게 생각지는 말 것. 51년생 운수가 불길하니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라 63년생 아무리 천하더라도 오늘은 속마음을 터놓지 말 것. 75년생 큰 대회를 건너려면 큰 배가 필요하다. 87년생 경사가 있으니 잔치를 준비할 것.</p>	<p>42년생 술수를 부리지 않아도 이를 수 있으니 걱정마라. 54년생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 66년생 주변에서 자신의 소문이 들려오지도 모른다. 78년생 한쪽으로 치우치는 발언을 하지 말 것. 90년생 가족과 행복한 하루를 보낼 듯.</p>	<p>45년생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은 없고 일거리만 늘어날 듯. 57년생 여러 가지 일이 겹친다. 69년생 누군가가 나에게 감동을 준다. 81년생 생각지 않은 변화가 생긴다. 93년생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집착은 하지 말 것.</p>
<p>37년생 조금 힘들어도 인내심을 가질 것. 49년생 뒷사람과의 감정대립이 나타나겠다. 61년생 주저하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73년생 지인을 만나 과소비 예상되나 미래의 투자로 보라. 85년생 진정한 친구를 가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p>	<p>40년생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더라도 조금까지 말 것. 52년생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64년생 그동안 기다린 일이 있다면 기회는 오늘일 듯. 76년생 청탁은 거절하라. 88년생 건강상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p>	<p>43년생 남의 말 믿지 말고 소신껏 행동할 것. 55년생 부절절한 유혹을 받을 수 있으니 피할 것. 67년생 매마내 개악문제는大吉. 79년생 부모님과 말다툼이 예상된다. 91년생 미심쩍다면 반드시 잡고 넘어갈 것.</p>	<p>46년생 두뇌 회전이 빨라야 유리하다. 58년생 주변 사람과 의논하라. 70년생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다. 82년생 몸이 좋은 것 너무 찾지 말 것. 94년생 부탁할 일이 있다면 오늘이 좋다.</p>
<p>38년생 폭력사건에 휘말릴 수 있으니 조심할 것. 50년생 피부질환, 위장질환 등에 주의할 것. 62년생 선배의 조언에 따를 것. 74년생 이직에 대해 고민거리가 생길 듯. 86년생 이익만 생각한다면 친구를 잃을 수도 있겠다.</p>	<p>41년생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라. 53년생 오늘은 최선을 다한다면 안되는 일이 없었다. 65년생 마음은 바쁘는데 몸이 따르지 않겠다. 77년생 넓은 아량이 필요하다. 89년생 소송 중에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p>	<p>44년생 시기당할 수 있으니 조심할 것. 56년생 새로운 계획으로 분주해진다. 68년생 임의로 하지 말고 자연에 순응하라. 80년생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가져라. 92년생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활활 타오르는 날.</p>	<p>47년생 의무를 이행하기에 분주하고 바쁘다. 59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겠다. 71년생 하는 일마다 장애가 있으니 다음날로 변경하라. 83년생 남의 일에 괜히 참견하면 오해만 사겠다. 95년생 계획이 없던 지출로 주머니 사정에 문제가 생기겠다.</p>



강화 우/성/공/업/사

H빔공사 · 조립식판넬 · 공장신축 · 전원주택 · 축산시설 · 잡철공사전문

성실시공으로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성
공업사가 되겠습니다.

주소 :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34(남산리27) TEL : 032)933-3125 H·P : 010)5274-3126



섬세한 손끝으로 노년의 향수를 자극하다

월요일에 만나는 예술인

박소봉 무용가

실버극장 미림서 건강체조 진행해 호응
과거 노래 맞춰 춤 추는 소울댄스 강의
한국무용·힙합 등 융합한 공연 소망도

“눈 주변 근육을 꼭꼭 눌러 주세요. 10초간 3번 반복해 보세요”라는 멘트로 시작하는 눈건강 강의 동영상은 실버극장인 ‘추억극장 미림’에서 영화 상영 전 스크린에서 꼭 소개되는 프로그램이다.

추억극장 미림의 최현준 부장과 무용가 박은주·박소봉이 아이디어를 내 주 관객층인 노인들

을 위해 만든 이색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다. 무용가 박소봉(32)은 추억극장 미림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파견한 7명의 예술인 중 한 명이다.

그녀는 “박은주 무용가와 함께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건강체조를 진행하는 ‘미리미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제 강의에서는 과거 그 시절 음악에 맞춰 부드럽게 춤을 추는 소울댄스를 알려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열정을 다해 살아오시다 보니 흥겹게 노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다”며 “마치 우리 부모님을 보는 듯해 마음이 찡해 세심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지난 15일 시

작된 미리미 케어는 10월 3일까지만 운영되는 단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의 반응이 좋는데 어떡하죠? 오랫동안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파견해 현재 극장을 돕고 있는 예술인들과 지난주에 단합대회도 다녀왔다. 노인들을 위한 인턴 유일의 전용관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제안도 했다.

“추억극장 미림이 옛 극장을 인수해 그대로 운영하다 보니 ‘오래된’ 또는 ‘낡은’ 이미지가 조금 남아 있는 게 사실이죠. 노인들을 위해 지자체 등이 지원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지는 추억의 장소로 변신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예요. 그러면 젊은 세대도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서인천고를 졸업하고 한국무용을 전공한 그녀가 제주도립무용단 등 앞날이 보장된 길을 떠나고 거리공연이나 현장을 찾아다니는 춤꾼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이가 많다.

“안무가가 던져주는 내용을 그대로 소화하는 무용수가 아닌, 저만의 작품을 가지고 나의 몸으로 연기하는 춤꾼이 되고 싶어요.”

그녀는 서울 건대 입구 앞에 있는 커먼그라운드에서의 공연을 앞두고 춤 스승인 스테기(유정훈)·간(권석진) 등과 함께 현재 맹연습 중이다.

“한국무용과 힙합 등을 융합한 공연을 국내에서 해 보고 싶어요. 아직은 연습으로 맘을 흘리면서 살아있다는 희열과 만족감을 느끼고, 수많은 맘은 곧 희망으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김정일 기자 kik@kohoibo.co.kr



18세기 조선시대 사대부와의 만남

도박물관, 조관빈 유물 기증 받아
유지초본서 초안 과정 알 수 있어

경기도박물관은 양주 조(趙)씨 문간공파 중 괴산공파 증손 조범식 씨에게서 조관빈(趙觀彬) 초상 6점을 포함해 유물 총 13점을 최근 기증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조관빈(1691~1757)은 조선 영조 때 호조판서, 예조판서, 판중추부사, 홍문관 대제학을 지낸 사대부다.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국보(國甫), 호는 화현(華軒),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부친은 노론 4대 신 중 한 명인 조태제(趙泰采)다.

조관빈 초상은 관복본 전신상 1점, 관복본 반신상 1점, 시복본 반신상 1점, 유지초본 3점 등으로 다양한 형식과 뛰어난 수준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시복본 반신상 화폭 상단에는 ‘동호(조관빈의 호) 조공의 55세 초상(東湖趙公五十五歲眞)’이라는 제목과 함께 그림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다. 이를 통해 초상화가



조관빈 초상 유지초본.

조관빈이 55세 때인 1745년 제작됐음을 알 수 있다. 또 숙종 어진의 모사도감이 설치된 1748년(영조24) 왕이 친히 조관빈의 초상화를 살렸음을 파악할 수 있다. 유지초본들은 초상화 화가의 초안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박노훈 기자 nhp@kohoibo.co.kr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특별전시
34점 마련... 아트홀서 30일까지



이천아트홀 아트갤러리에서 제19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부대행사로 ‘참여작가 특별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전시회에는 올해 심포지엄 참여 작가 9명과 기존 참여작가 9명 그리고 이천조각가협회 작가 16명 등 총 34명 작가들의 작품 34점이 전시된다.

문화와 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조각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작가들이 시민들을 위해 펼치는 작품세계로, 아트갤러리라는 가까운 전시장을 통해 직접 보고 느끼며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ohoibo.co.kr

일곱 빛깔 국악 향연 ‘취향저격’

도립국악단 창단 20주년 기념 공연
27일 경기도문화의전당서 관객맞이
가야금~아쟁 7가지 악기 연주 선배

경기도립국악단<사진>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천년의 소리, 일곱 빛깔로 피우다’ 공연을 오는 27일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곡가에게 의뢰한 위촉 초연곡으로 관객과 함께 한다.

여기에 국악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인 ‘치세지음(治世知音)’ 프로젝트(이하 치세지음)의 서막을 여는 공연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치세지음은 음계와 조성의 변화가 어려운 국악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프로젝트다. 도립국악단은 현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음악을 소화하도록 숙련된 연주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악기 개량을 목표로 최상화 감독의 지휘 아래 지난 1월부터 1천 쪽에 달하는 연습교본을 직접 제작, 연습해 왔다.

국악관현악을 구성하는 악기인 가야금, 거문고, 대금·소금, 피리, 해금, 아쟁과 대표적인 퍼포먼스인 성악·사물 총 7파트가 공연을 선보인다. 악기별 특징과 음악적 깊이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공연으로 그간 갖고 있던 기량을 선보이는 무대가 될 것이다.

여기에 창작 국악의 새로운 지평을 연 7인의 작곡가 계성원, 김대성, 김만석, 김성국, 박위철, 이경섭, 최용석이 함께 하며 진한 음악적 색채를 더한다.

가야금 파트를 위해 25현 가야금 합주곡 ‘줄긋’을 작곡한 계성원 작곡가는 경기도당국 장단을 현대적으로 변주했다. 거문고와 타악을 위한 ‘개굴개굴’을 작곡한 김대성 작곡가는 원산도 선춘마을에서 민요를 채집할 때 들은 개구리 울음 소리에서 영감을 받았다.

해금 파트를 위해 해금중주에 의한 ‘판산조’를 작곡한 김만석 작곡가는 판소리와 산조를 엮었으며, 피리 파트의 피리양상부를 위한 ‘해방(解放)’을 작곡한 김성

국 작곡가는 규제와 규율을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갈구하는 삶에 대한 성찰을 담았다. 대금과 소금 파트를 위해 ‘개미들의 행진’을 작곡한 박위철 작곡가는 개미들의 세상을 상상했으며, 아쟁중주곡을 작곡한 이경섭 작곡가는 해금협주곡 ‘추상’, 국악관현악 ‘방황’ 등 오늘날 가장 많이 연주되는 대중적인 창작곡을 선보인다.

성악 파트와 사물놀이 파트가 함께 할 이야기소리 ‘검정개미 탄생설화’를 작곡한 최용석 작곡가는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창작 판소리로 주목을 끌고 있다.

최상화 예술감독은 “우리는 천년을 지속해 온 전통음악의 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傳統)을 ‘전’하기만 하고 ‘통’할 줄 몰랐다”며 “이번 공연은 전통 악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해 연주한 음악회가 될 것이며, 현 시대와 통(通)할 수 있도록 연주법 개발, 악기 개량, 레퍼토리 확장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훈 기자 nhp@kohoibo.co.kr

오방색·소나무로 빚어낸 이야기

이천시평생학습관이 두 개의 전시회를 오는 30일까지 개최한다.

갤러리나무에서 열리는 ‘인천예고 테마 공모전, 오방색에 이야기를 담다’와 갤러리 다솜에서의 ‘이은하 개인전, 송

(松) 이야기’이다.

‘오방색(五色色, 청(靑)·적(赤)·황(黃)·백(白)·흑(黑))에 이야기를 담다’라는 주제로 인천예고 미술과 재학생들이 그린 작품 4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인천시평생학습관 30일까지 2개展
인천예고 학생·이은하 씨 작품 준비

우리에게 익숙한 ‘소나무’를 주제로 한 이은하 개인전은 붉은 나무껍질, 검은 솔방울, 푸른 잎으로 구성된 소나무를 표현한 작품 20여 점이 선보인다.

김정일 기자 kik@kohoibo.co.kr

드림에어(주)

홈페이지 <http://www.dreamair.kr>

냉/동/공/조/전/문/기/업 드림에어(주)

당사는 향온향습기 등의 냉동공조장비 전문제작 업체로서
제품제작 / 설치 / 시운전 / 사후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산품목
✓ 향온향습기
✓ 공조기
✓ 냉동기(칠러)
✓ 제습기 등

제품문의 032)572-5315~6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143 FAX 032)572-5317 E-MAIL dair@hanmail.net

AI시대 이끌 아이들 로봇 기술에 시선 집중

SK하이닉스 경기·충북지역 초중생 초청 IT창의과학탐험대 진행 반도체 제조현장 견학·첨단 기술 시연·실무 전문가 강연 등 호응

SK하이닉스가 미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경기·충북 지역의 초·중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IT창의과학탐험대' 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IT창의과학탐험대'는 미래의 과학인재를 육성하는 '하인슈타인(SK하이닉스+아인슈타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특히 학생들이 과학인재로 성장해 이공계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꿈을 키워

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올해 SK하이닉스는 미래 중심산업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분야를 주제로 과학탐험을 진행했다. 탐방에 앞서 약 3주간 사전 교육을 실시해 로봇, 무인시스템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본격적인 일정 시작 18일부터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시작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을지대학병원 등을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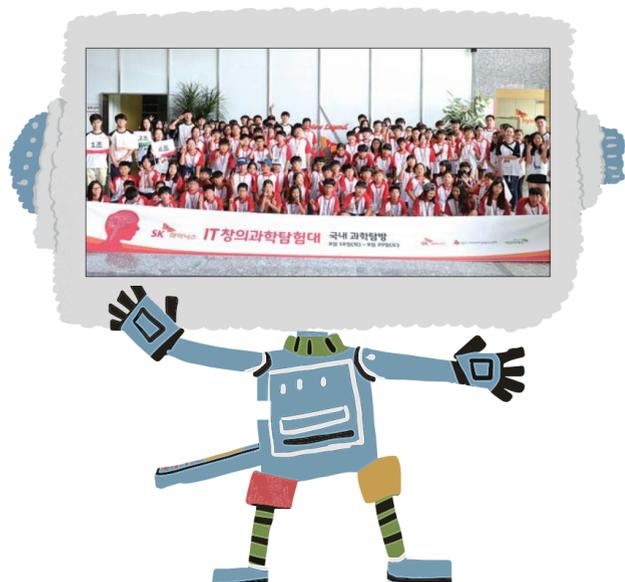
이번 견학을 통해 학생들은 반도체 제조공장과 더불어 인간과 유사한 모습의 로봇인 휴머노이드(Humanoid), 동식물을 본떠 만든 생체모방로봇, 무인항공 및 위성기술, 최첨단 의료기술 시연 등 생생한 현장 체험과 실무 전문가들의 강연을 듣는 시간이 가졌다.

SK하이닉스는 이번 국내 견학에 참여한 IT창의과학탐험대원 중 우수 학생 20명을 선발해 중국 우시(無錫)의 SK하이닉스 생산법인, 상하이(上海)의 제네럴모터스(GM) 무인생산라인 등 글로벌 과학 현장 체험의 기회도 제공해 국제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견학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IT창의과학탐험대원으로 선발된 박서준(이천초 6년)군은 "SK하이닉스 견학을 통해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제로 보게 돼 매우 흥미로웠고, 로봇 등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알게 돼 앞으로 과학 분야에 더욱 흥미를 갖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들이 과학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IT 및 과학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신승택 기자 syb@khihoilbo.co.kr



국회 찾은 학생들 교과서 밖 정치 공부 쏙쏙

'일산 청소년 민주주의 학교' 성료 의정활동 참관·의원 특강 등 진행

고양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의 고귀한 가치와 정치의 중요성을 일깨운 '제1기 일산 청소년 민주주의 학교'가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열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현미(고양정)국회의원이 국회의 사당과 고양시청에서 직접 주최한 가운데 사전 신청을 통해 선발된 초·중·고 학생 20여 명이 참가했다.

21일 김 의원에 따르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제1기 일산 청소년 민주주의 학교'는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이뤄지는 의정활동을 9일과 10일 이틀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첫날 고양시청과 고양시의회를 방문해 각각 시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주요 브리핑을 청취하고 최성 시장, 소영환 의장 등과 인터뷰를 갖은 뒤, 김달수



경기도의원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주제로 실시한 특강에 참여했다.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진행된 2일 차 일정에서는 국회 의정활동을 참관한 뒤 시인 출신 도종환 국회의원의 특강을 듣고, 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밀착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교과서와 TV에서만 보던 국회와 정치인들을 직접 보게 돼 신기했고, 앞으로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미 국회의원은 "학생들이 학업에 지쳐 있을 법도 한데 생각보다 활기차고 또 적극적이어서 매우 기뻐했다"며 "비록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학생들이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됐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일산 청소년 민주주의 학교'는 앞으로 매 학기와 방학 중 각각 1회씩 정기적으로 일산 프로그램을 선보일 방침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hihoilbo.co.kr

의왕소방서 구급대원 5명에 '하트세이버' 수여

의왕소방서는 소중한 생명을 소생시키는 데 기여한 구급대원 5명에게 하트세이버를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하트세이버는 백은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이혜숙·손정원·신광혁 구급대원과 부곡출동대 김혜원·박지훈 구급대원이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건의 구급 현장에서 심장 마비로 쓰러진 환자에게 기도 유지 및 정맥로 확보, 심폐소생술 등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실시해 생명을 구한 공을 인정받아 하트세이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하트세이버(Heart Saver)란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이란 뜻으로 의식이 없는 호흡정지·심정지 환자를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사람에게 인증서와 기념배지를 수여하고 있다.

의왕=윤승재 기자 ysj@khihoilbo.co.kr

수원중부뿔 울천파출소 주택가 방범 진단 실시

수원중부경찰서 울천파출소는 21일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휴가철 및 명절 연휴를 대비해 빈집·차량털이·아파트 침입절도 예방을 위해 주택가 순찰 강화 및 방범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방범 예방활동은 휴가철을 맞아 관내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 아파트 침입절도 수법 및 예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관내 아파트 및 원룸 주거단지를 순찰해 CCTV와 수목 정리상태 점검 등 방범 진단을 실시했다. 특히 관내 범죄취약지 20여 곳을 중심으로 희망 가정에 한해 창문을 열면 경고음이 울려 침입 사실을 알리는 '창문 경보기'를 설치하는 활동도 진행했다.

임성봉 기자 bong@khihoilbo.co.kr



서범수 경기북부경찰청장 남양주 청소년경찰학교 방문

서범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9일 남양주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를 방문했다.

청소년경찰학교는 경찰 치안센터를 학교폭력 예방교육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범죄예방교실, 경찰체력 체험실, 사격 체험실, 과학수사실, 수사관 체험실 등을 갖추고 학교폭력가·피해자 역할심리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북부지역에는 일산경찰서와 남양주경찰서에 청소년경찰학교가 있으며 2014년 7월, 2015년 8월에 각각 개교해 지난달 기준 2천845명이 수료했다.

서 청장은 이날 천마중학교 학생 20명, 해미초등학교 학생 10여 명 등 30여 명이 모인 경찰체험 현장에서 학생들을 응원하고 남양주 학교전담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hihoilbo.co.kr

발길 닿는 곳곳 뜨거운 애국심 물씬

가천대학교 총학생회는 올바른 역사 인식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박애·봉사·애국 안보원정대'를 구성,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안보캠프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학생 400여 명이 참여한 원정대는 첫날인 18일 용산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한국전쟁 등 각종 안보 전시물을 관람했다. 이어 문형만 가천대 학군단장(대령)의 안보특강을 듣고 다양한 의견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가천대 박애·봉사·애국 원정대는 2013년을 시작으로 이번이 6회째다. 독도를 비롯해 DMZ, 판문점, 제3땅굴 등을 방문해 가천대의 교훈인 박애·봉사·애국의 이념을 심어 주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한편, 22일부터 25일까지는 교수, 직원, 학생 등 총 150명이 참여하는 '박애·봉사·

가천대 총학생회 안보캠프 성료 오늘부터 교직원 등 대장정 진행



애국 한마음 대장정'을 진행한다. 대장정은 가천대(성남)를 출발해 미디어컬 캠퍼스(인천), 김포 문수산성, 인천 강화 덕포진, 가천리더십센터(강화)로 이어진다. 도보와 버스를 통해 이동하며 그 중 43

km를 두 발로 직접 걷는다. 이 가운데 김포 평화누리길 1코스(염하강 철쭉길, DMZ 등)를 걸으며 분단의 현실을 재인식하고 안보의식을 일깨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khihoilbo.co.kr



연천쌀 소비 촉진 한마음 한뜻 군농기센터 '쌀의 날' 맞아 쌀빵·떡 나눔행사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일 전곡읍 시가지(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 앞에서 한국생활개선 연천군연합회 주최로 김구선 군수 및 이종만 군의회 의장·의원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쌀의 날 연천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떡·쌀빵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쌀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쌀의 날(매년 8월 18일)에 쌀떡과 쌀빵을 나누며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천쌀로 만든 떡과 빵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도록 농업중앙회 연천군지부, 3개 단위농협, 백학쌀쌀 등 쌀 가공업체, 각급 농업인단체장, 농업 관련 공무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모든 행인들에게 쌀빵을 나눠 줬다. 또한 연천쌀 소비를 촉진하는 데 한마음 한뜻이 돼 달라고 홍보물을 나눠 주며 농업인들에게 힘을 실어 줬다.

한편, 농기센터는 가정과 체험농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맛있는 떡 만들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쌀을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연천쌀 소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hihoilbo.co.kr



민원업무·송금 한국서도 쉽게 광주시 다문화 서포터스 대상 공공기관 이용 교육

광주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올해 상반기 다문화 가정 서포터스 활동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서포터스 역량 강화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용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은 다문화가정 서포터스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사회복지·경찰·소방·보건·금융 분야의 공공기관 담당자 6명을 초청해 금융·출산·보육·보건사업은 물론 각종 범죄 대처법, 소방안전, 응급처치법, 은행 이용·해의 송금 등 기초 금융지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으로 다문화가정 서포터스는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경찰서, 소방서, 금융기관 등의 이용 방법을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주변의 새내기 결혼이민자와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다 같이 행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다문화 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이 있으면 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적극 추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박철교 기자 pcg@khihoilbo.co.kr

주근야독 '값진 열매' 뿌듯해요

용인시 유기석 과장·송석윤 팀장 박사 학위 취득

바쁜 업무 중에도 주근야독(晝夜夜讀)하며 40~50대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용인시 공직자가 화제다.

주인공은 교통정책과 유기석(55)과 과장 위생축산과 송석윤(48)팀장. 이들은 지난 18일 명지대에서 나란히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 과장은 용인시 경량전철 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흐름 모형에 입각한 정책변동 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송 팀장은 '경기도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실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각각 학위를 받았다.

특히 유 과장은 아동보육과장으로 근무하던 시기에는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송 팀장은 용인시 축산물 브랜드인 성산포크를 육성하는 등 축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며, 축산 관련 업무를 소재로 한 소설 '베스트셀러 소'를 출간하기도 했다.

용인=우승우 기자 bison88@khihoilbo.co.kr

아이들엔 배움을 이웃엔 사랑 전하는 '마을 선생님'

인천 남구은마을학교, 초중등생 교육 공동체 조성
보육원 방문 빵만들기 등 21개 프로그램 운영 호응

인천시 남구은마을학교가 마을 봉사의 모범이 되고 있다.

남구은마을학교는 남구가 지역 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마을 기반의 돌봄과 배움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와의 협력으로 교육 시너지를 창출해 행복한 마을교육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6월부터 인문학 6개, 심리정서 1개, 문화예술 7개, 생태환경 4개, 글로벌교육 1개, 체육 1개, 인성 1개 등 총 7개 분야 21개 프로그램을 마을 곳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남구은마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중등학생은 1

천500여 명에 달한다.

지난 19일에는 학생 8명이 이기옥 사랑광 대표와 함께 '사랑광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들은 인천해성보육원을 방문해 원생들과 함께 쿠키와 빵을 만들고 이를 나눠 먹는 시간을 가졌다. 빵 만들기 이후에는 보육원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김은경 평생학습관장은 "사랑광 만들기 같은 나눔 프로그램은 남구은마을학교 운영 취지와 맞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남구은마을학교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인사

| 용인시 | ◇전보 <4급>▶ 복지여성국장 전재영 ▶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상섭 ▶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

알림

▶ 인천세계청년미디어 콘퍼런스=9월 1일(목)~3일(토) 웨라톤호텔 등. ▶ 인천언론인클럽(회장 박민서) 사무실 이전=인천시 남동구 소래로 500 남동체육관 109호. ☎032-468-9235

결혼

▶ 김무민(김성영·박금훈 씨 차남)·조다혜(조규창 서양화가·김현숙 씨 장녀) 양=9월 3일(토) 오후 2시 인천 라페니체 웨딩홀(2001아울렛 5층, 부평구 경원대로 1277). ☎032-523-8600~1



무더위 잊게 만든 보양식 대접

무궁화리더스포럼, 인천 남구 노인 삼계탕 후원

인천지역 사회봉사단체인 새무궁화리더스포럼이 건강밥상 나눔활동에 나섰다.

인천남구노인복지관은 지난 19일 무궁화리더스포럼이 남구지역 노인들을 위해 삼계탕 400그릇을 후원했다고 21일 밝혔다.

무궁화리더스포럼은 올해로 4회째 지역 노인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하기 위한 정기 후원과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은 삼계탕과 수박을 먹으며 "막바지 무더위를 이겨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인천시교육청, 학교예술교육 담당교원 세미나 개최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9일 '2016 전국 학교예술교육 담당교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시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9월 열리는 '전국 학교예술교육 페스티벌' 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이 페스티벌은 전국 145개 교 4천100여명의 학생들이 공연·전시를 체험하는 대규모 예술축제다.

세미나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술교육 담당 장학사와 지도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강은 성균관대 오종우 교수가 '세상을 바꾸는 예술적 상상력'을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 이후에는 페스티벌 행사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 안내, 5개 영역(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예술동아리, 전시·체험부스) 행사장 답사 및 점검, 영역별 세부 운영 협의 등이 이뤄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풍성한 학교 예술교육을 만들어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학사모 쓴 날의 다짐 잊지 말고 전진하길

인천대 2015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
조동성 총장 "뜻하는 바 매진" 당부

인천대학교는 지난 19일 송도캠퍼스 대강당에서 '2015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서는 박사 31명, 석사 117명, 학사 1천17명 등 총 1천165명이 학위를 받았다.

조동성 총장을 비롯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이병욱 이사장, 김광오 총동문회장, 국립인천대학교 후원회 박영복 이사장 등 주요 인사와 학위 수여자 및 학부모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성 총장은 "여러분은 이제 부모의 지원과 학교의 보호에서 벗어나 모든 면에서 독립해야 한다"며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함은 물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만큼 뜻하는 바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매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천대를 졸업하는 여러분이 나눔과 봉사를 통해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길 때

가 왔다"며 "도전정신을 갖고 큰 그림을 그리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고, 먼저 한계를 설정하지 말고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해서 인천대인으로서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했다.

최유탉 기자 cyt@kihoilbo.co.kr

한중 기업 10년 우정 더욱 돈독히

중 장강운발 그룹, 대주·KC그룹 방문
10년 교류... 헬스케어 분야 협력 약속

대주·KC그룹은 최근 중국 장쑤(江蘇)성 장자강(張家港)시 장강운발 그룹(長江潤發集團)의 위사처우(郁霞秋) 총재 일행이 그룹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장강운발 그룹은 헬스케어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해 대주·KC그룹을 방문했으며, 양 기업은 지난 10여년간 수출입 등 인적·물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1989년 설립된 장강운발 그룹은 엘리베이터 가이드레일, 현강, 지문방지판, 건축자재, 향만기계·조선, 헬스케어, 건설, 호텔 및 부동산 개발 등의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는 중견그룹이



다. 박주봉 대주·KC그룹 회장은 "끈끈한 파트너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양 그룹이 공동 발전하고, 회사는 물론 우

리나라 기업이 중국과 더 활발한 사업을 확대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인생 2막!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유)와이즈에너지월드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확실하고 안정된 소득! 노후를 준비하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에 근거한 태양광 RPS발전사업은 건물 위, 대지에 자신에 자금규모에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후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 또는 전력거래소, 발전소에 판매하는 안정된 사업입니다.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치하면 전기요금 부담 해결됩니다.

• 누진세로 전기요금이 걱정되는 주택 • 공동주택의 공동전기요금 절약 • 신축주택의 태양광설치로 가치상승

태양광발전설비 · 전기공사 · 수요자원등록 전문

태양광발전사업 문의 ☎1566-1336

올림픽 4회 연속 10-10 좌절? ... 그래도 자랑스러운 선수들

<금메달> <종합순위>

Rio한국선수단 도전 드라마 박인비·차동민 등 분전에도 아쉬움

박, 여자 골프 116년 만에 금메달 차, 통한의 역전패로 태권도 '銅' 남은 경기는 남자 마라톤 1종목 손명준·심중섭 메달권 어려움

리우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선수단이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이후 12년 만에 '10-10'(금 10개 이상-종합 10위 이내) 달성에 사실상 실패했다. 한국선수단은 21일(한국시간) 오전 8시 현재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8개를 따냈다. 이날 한국은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여자골프에서 116년 만에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그러나 기대했던 태권도 80kg 초과급의 차동민(30·한국가스공사)이 라디크 이사에프(아제르바이잔)에게 역전패해 패자부활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이제 한국선수단에 남은 경기는 22일

치러지는 남자 마라톤뿐이다. 남자 마라톤의 올림픽 기록은 2시간 6분대지만 경기에 나서는 손명준(22·삼성전자 육상단)과 심중섭(25·한국전력 육상단)의 개인 최고 기록은 각각 2시간 12분대와 2시간 13분대여서 메달 전망이 어둡다. 사실상 더 확보할 금메달이 없는 한국선수단은 이번 대회를 금메달 9개로 마감할 전망이다. 한국이 올림픽에서 두 자릿수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은 2004년 아테네 대회(금 9, 은 12, 동 9개)가 마지막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메달 순위에서 호주·이탈리아·네덜란드(이상 금 8개) 등이 금메달을 추가하지 못하면 종합 10위 이내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애초 목표는 '철반의 성공'으로 마무리된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빛 포효'를 기대했던 남자 유도도와 남자 레슬링 등이 모두 '노골드'에 그친 게 목표 달성 실패에 치명적이었다. /연합뉴스

태권도 5인방 전원 메달 수확 쾌거

김소희·오혜리 금빛 수확 이후 차동민 등 男 3명 동메달 걸어

태권도 대표팀 만행 차동민(30·한국가스공사)이 8년 만의 정상 탈환에는 실패했지만 자신의 두 번째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다. 차동민은 21일 오전(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아레나3에서 열린 2016 리우 올림픽 태권도 남자 80kg 초과급 동메달결정전에서 드미트리 쇼킨(우즈베키스탄)을 연장 접전 끝에 4-3으로 물리쳤다. 3라운드까지 3-3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골든 포인트제로 치르는 연장에서 11초 만에 원발로 몸통을 차 승부를 갈랐다. 이로써 차동민은 2008년 베이징 대회 금메달에 이어 8년 만이자 자신의 두 번째 올림픽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한국 남자 태권도 선수로는 처음 3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한 차동민은 베이징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차지했으나 2012년 런던 대회 때는 8강에서 탈락했다.

차동민이 동메달을 쟁겨 이번 대회에 출전한 한국 태권도 대표 5명은 모두 메달을 갖고 돌아간다. 역대 최다인 다섯 명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차동민에 앞서 여자 49kg급 김소희(한국가스공사)와 67kg급 오혜리(춘천시청)가 금메달을 수확했고, 남자 58kg급의 김태훈(동아대)과 69kg급의 이대훈(한국가스공사)이 동메달을 따냈다. 차동민은 이날 첫 경기(16강전)는 상대 선수인 벨라루스의 아르만-마살 실라가 전날 계체에 참가하지 않아 실격패를 당하면서 바로 8강에 직행했다. 하지만 8강에서 지난해 러시아 첼랴빈스크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87kg급 챔피언인 라디크 이사에프(아제르바이잔)에게 8-12로 역전패해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사에프가 준결승에서 마하마 조(영국)를 4-1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한 덕에 패자부활전에 출전할 수 있었다. 패자부활전에서는 루슬란 자파로프(카자흐스탄)에게 15-8로 역전승했다. 동메달을 놓고 마지막 대결을 벌인 쇼킨은 세계태권도연맹(WTF) 올림픽 랭킹

이보미 JLPGA '우승 트로피' 상금왕 2연패 한발짝 다가

이보미는 21일 일본 가나가와의 다이하코네골프장(파73·6천704야드)에서 열린 JLPGA 투어 CAT 레이디스 최종일 연장 접전 끝에 정상에 올랐다. 3라운드에서 1언더파 72타를 쳐 합계 9언더파 210타로 전미정(34), 오에 가오리(일본)와 연장에 나선 이보미는 연장 첫 번째 홀에서 1m 버디로 승부를 갈랐다. 메이저급 우승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이보미는 시즌 네 번째 우승으로 상금왕 2연패에 푸른 신호등을 켰다. 우승상금 1천80만 엔을 보낸 이보미는 시즌 상금을 1억1천92만 엔으로 늘렸다. 이보미는 상금, 다승, 평균타수 등 주요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보미는 이날 28번째 생일을 맞아 기쁨이 더했다. 일본여자프로골프협회는 생일에 우승한 선수가 8번째라고 밝혔다. 이보미는 이번 우승으로 올해 목표 가운데 하나인 통산 20승에 바짝 다가섰다. /연합뉴스

효명고, 31년만에 대통령기 테니스 정상

연천 전곡고와 결승서 3대 2 승리 한장규 감독 "집중력 유지 고마워"

평택 효명고등학교가 제42회 대통령기 전국남녀테니스대회 남자고등부에서 31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효명고는 지난 20일 전북 순창공설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남자고등부 결승에서 연천 전곡고를 3-2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효명고는 1985년 제11회 대회

우승 이후 31년 만에 정상에 오른 기쁨을 누리며 지난 3일 낮소기대회 우승에 이어 시즌 2관왕에 올랐다. 4개 단식이 동시에 열린 이날 효명고 한선용이 제1단식에서 전곡고 김동규를 2-0으로 완파했으나, 노황규가 2단식에서 이정현에게 0-2로 패해 종합전적 1-1로 맞섰다. 효명고는 3단식에서 윤다빈이 전곡고 이원복을 2-0으로 꺾고 다시 앞서 나갔지만 한선용이 4단식에서 이영석에 0-2로 패해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나리는 1세트부터 강한 스트로크 등

로 상대를 흔들며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며 기선을 제압한 뒤 2세트에서도 4게임을 연속 따내는 집중력을 발휘하며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김나리는 "컨디션 등이 엉망이라 경기가 길어지면 패할 것 같아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친 것이 승리의 요인이 돼 쉽게 이긴 듯하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hiolbo.co.kr

팀 성적 최하위에 부상악령 kt 위즈 '마르테' 전력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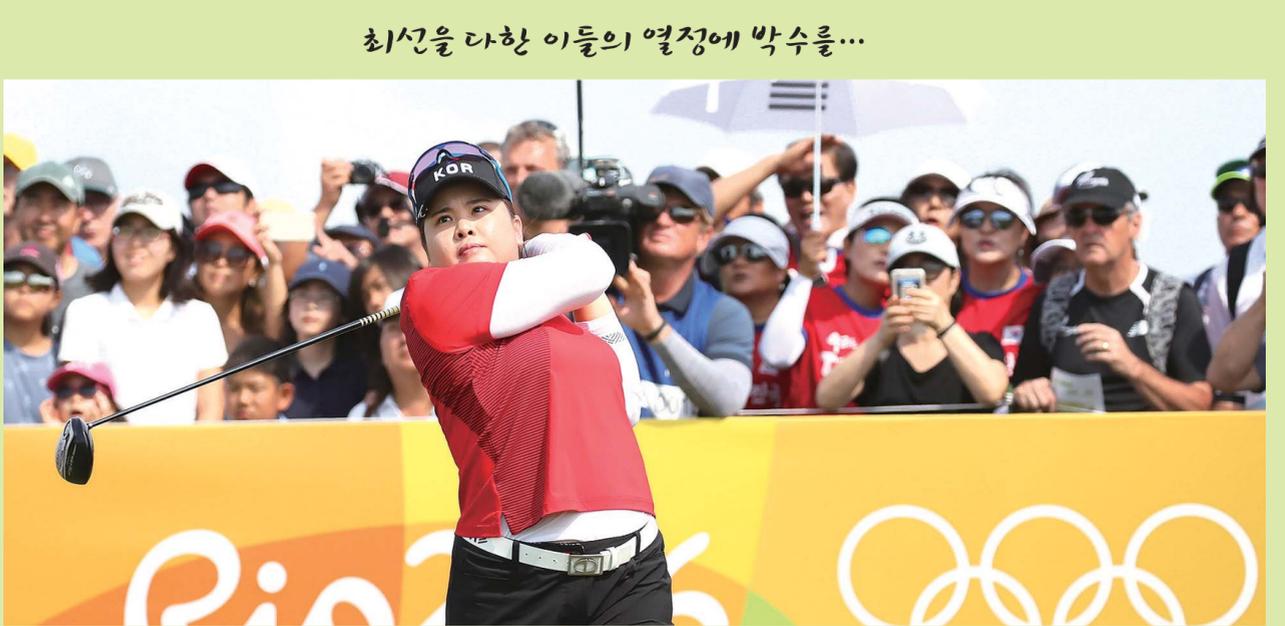
허리디스크 판정받고 수술 결정

프로야구 kt 위즈(대표이사 김준교, ktwiz.co.kr)의 외국인 타자 앤디 마르테(Andy Marte·33)가 허리 부상으로 수술을 받는다. 앤디 마르테는 허리 수술로 시즌을 마감하게 됐다. kt 위즈는 지난 11일 허리 통증으로 1군에서 말소된 마르테가 수원 바로본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재검 결과 수술을 결정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구단 지정병원인 수원 바로본병원에서 진단 결과 이후 시술 및 재활치료를 받아 오다 19일 재검 결과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수술 후 회복 및 재활기간은 3개월이며, 남은 일정을 고려하면 마르테는 올 시즌 잔여 경기 출전이 힘들어졌다. 심언규 기자 sims@khiolbo.co.kr

지난해 kt 위즈 유니폼을 입은 마르테는 타율 0.348, 20홈런, 89타점으로 팀 타선을 이끌었다. 올해는 타율 0.265로 작년보다 떨어졌지만 대신 22홈런으로 장타력이 좋아졌고, 74타점으로 좋은 활약을 이어갔다.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kt는 주력 선수의 이탈로 더욱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심언규 기자 sims@khiolbo.co.kr

오늘의 경기

◇22일(월) ▶프로축구2부=경남-서울티(청원축구센터) 고양-대전(고양종합운동장·이상 오후 7시) ▶테니스=제1차 안성 국제남자프로테니스대회(오전 9시·안성 무궁화컵 전국여자대회(오전 9시·춘천) ▶수영=대통령배 전국대회(오전 9시·전주 원산수영장) ▶배구=OK저축은행배 전국대학남해대회(오후 5시·경남 남해실내체육관) ▶농구=프로-아마 최강전(오후 3시·서울 잠실학생체육관)



박인비가 21일 (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골프 코스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여자골프 경기 4라운드 7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파크 카리오카 아레나 3에서 21일 (한국시간) 열린 2016 리우올림픽 태권도 남자 80kg초과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차동민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명재가 21일 (한국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리듬체조 개인종합 결선에서 리본 경기까지 마치고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1위로 지난해 러시아 첼랴빈스크 세계선수권대회 87kg 초과급 챔피언이기도 한 강호다. 차동민은 세계 7위다. 1라운드는 신중하게 기회를 엿보다가 0-0으로 마쳤다. 2라운드 들어 서로 몸통 공격을 주고받은 뒤 차동민이 다시 몸통을 맞아 1-2로 끌려갔다.

차동민은 2라운드 막판 연속 몸통 득점에 성공하면서 3-2로 전세를 뒤집었다. 하지만 3라운드 1번여가 지나 쇼킨의 주먹 공격으로 1점을 빼앗겨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결국 먼저 득점하는 선수가 승리하는 연장에서 차동민이 11초 만에 원발로 쇼

킨의 몸통을 때려 승부를 갈랐다. 메달을 딴 뒤 차동민은 은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공부를 하고 싶다"며 "일단 언어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차동민을 꺾은 이사에프는 결승까지 올라 압둘라자크 이수푸 알파가니

제르)를 6-2로 제압하고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이수푸 알파가는 니제르 태권도 선수로는 처음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1972년 뮌헨 대회 복싱 동메달에 이어 니제르에 사상 두 번째 올림픽 메달을 안겼다. /연합뉴스



외세 침략 막고 마을 보호... 세월 지나도 여전히 수호신

10. 강화도 사기리 탱자나무



어릴 적 마을 어귀에 심어진 탱자나무에 열린 열매를 따 술방울과 함께 전정놀이를 한 적이 있다. 마치 성능 좋은 수류탄인 양 적진을 향해 힘껏 던지며 놀던 기억이 있다. 그러다 동네 어른들한테 들켜 혼쫓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탱자는 나이 지긋한 어른들에게는 귀한 열매일지 몰라도 단단한 껍질과 너무 신맛에 자라면서 단 한 번도 과일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오죽하면 '탱자 탱자 놀아서 쓰겠느냐'는 말이 있을 정도로 탱자나무 열매는 쓸모없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 탱자나무를 신중단지 모시듯 귀하게 여기는 곳이 있어 찾아갔다.

인천시 강화도 화도면 사기리 135-10번지에 위치한 수령 400년 된 탱자나무다. 천연기념물 제79호로 지정돼 열매가 익을 때면 동네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불침번을 서기도 할 정도다.

열매 하나도 함부로 따지 말라

강화 초지대교를 건너 해안도로를 따라 마니산 함허동천 쪽으로 가다 보면 조선시대 문신인 이견창(1852~1898) 생가가 나온다. 자연석 담장으로 둘러진 단조로운 1자형 초가집의 모습이 굳은 절개의 옛 선비 모습을 닮았다.

이곳에서 나고 자랐다는 김 씨에 따르면 탱자나무가 지금보다 예전에 엄청 크고 열매도 많이 열렸다. 이견창 선생의 6대 할머니가 낙향 기념으로 심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으로 봐서 수령이 그쯤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그분이 왜 탱자나무를 집 앞 뜰도 아닌, 길 건너에 심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원래 강화도 탱자나무는 고려 때 몽고의 잦은 침입으로 고종이 개경을 버리고 이곳으로 천도하면서 외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심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탱자나무 줄기에 난 가시가 외적의 접근을 막아 줬기 때문이다. 당시 강화 성벽 바깥에는 탱자나무가 빼곡히 심어졌지만 이후 정묘호란(1627년) 등 외적의 침입 때마다 성벽 주위의 탱자나무는 훼손되거나 뿌리째 뽑혀 대부분이 고사됐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탱자나무가 이곳 사기리 탱자나무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78호로 지정된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가 유일하다. 두 나무 모두 수령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조상들이 외적의 침입에 대비해 심은 '국토 방위의 유물인 셈이다.'

자손을 변창하게 하는 나무

이곳 탱자나무의 가지는 원래 동서남 세 갈래로 길

조선시대 문신 이견창 선생 생가 맞은편에 우뚝 주민들 울타리 만들고 잡초 제거 등 극진히 관리 매년 가을 열매 노랗게 잘 익으면 '풍년' 점치기도 줄기에 가지 많아 고려 때 몽고 침략 대비로 심어 정묘호란 등 외적 침입 때마다 상당수 훼손·고사 400여 년 풍파 버티고 현재 천연기념물 79호 지정



총정수도 암행어사와 해주 감찰사를 지낸 선생의 생가 맞은편에 높이 4m, 밑둘레 1m 정도의 아담한 크기의 탱자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다. 400년 긴 세월을 버틴 나무치고는 그 크기와 모양이 불품없게 느껴질 정도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탱자나무가 마을은 물론 나라를 구한 장수인 양 지극정성으로 떠받든다.

마을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용자(62·여)씨는 "탱자나무의 열매가 노랗게 잘 익을 때는 늘 마을에 풍년이 왔다"며 "마을의 길흉을 점치는 신령한 나무"라고 했다.

한 씨는 지금도 탱자나무가 있는 길가에서 전 옥수수를 비롯해 재배한 호박과 나물 등을 팔며 행여 누군가 탱자나무 가지를 훼손하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다. 오래된 탱자나무 가지는 나쁜 기운을 막고, 9월이면 노랗게 익어 가는 열매는 향이 좋아 가지째 꺾어 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탱자나무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무궁화를 심어 나무 자체가 길가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했다. 일부 몰지각한 이들은 나무 주변에 울타리를 쳐 놓고, 천연기념물 표지가 버젓이 있는데도 길가에 차를 세운 채 자루 한 가득 열매를 따 가기도 한다고 한 씨는 말했다. 최근 탱자나무 열매가 겨울철 감기 예방과 함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받고부터다.

나라를 지킨 국토 방위의 유물

한 씨가 좌판을 벌여 놓은 평상에 이견창 생가 관리인인 김 씨 아저씨가 앉았다. 굳이 자신의 이름을 알 필요 없다며 말을 아끼던 김 씨도 탱자나무 이야기가 나오자 참았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냈다.

게 가지를 뺀어 용틀임하듯 우람한 근육을 자랑했었다. 지금은 서쪽 가지가 말라 죽어 두 개의 가지가 힘겹게 서로를 지탱하고 서 있는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밑에 여러 개의 너럭바위는 아직도 지나는 행인의 고단한 다리를 쉬어갈 수 있게 한다. 얽히고설킨 가지가 잎이 다 떨어진 겨울에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붕막을 만들기 충분하다.

지금도 매년 봄이면 앞보다 흰 꽃이 먼저 피고, 가을이면 노랗게 열매가 익는다. 굴이나 유자처럼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지만 옛 조상들은 그 껍질을 말려서 해열제나 이뇨제 등에 유용하게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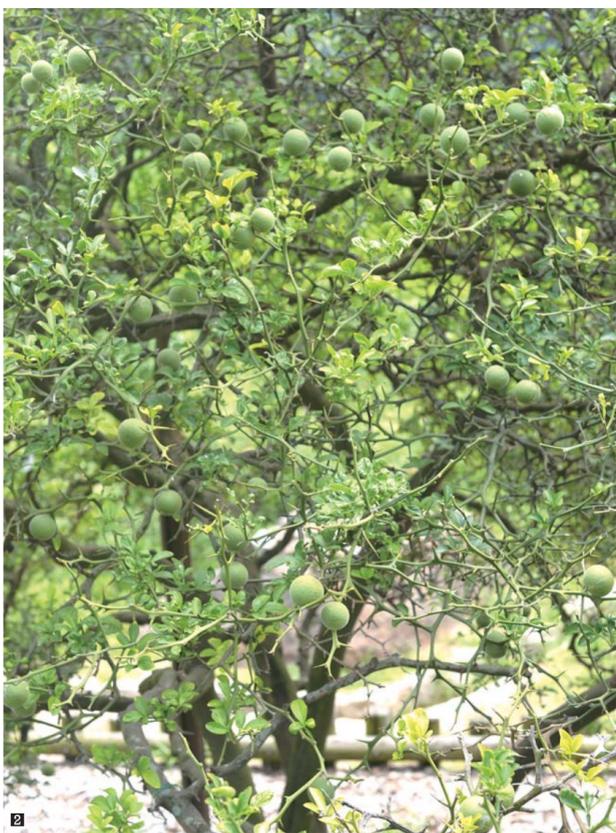
또 험상궂은 가시는 울타리를 치기에 안성맞춤이어서 외적은 물론 나쁜 기운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보니 나무의 모습이 추상 같은 기개로 탐관오리를 벌하고, 굼주린 백성들의 구휼에도 힘썼던 이견창 선생의 생전 모습과도 흡사하다.

통일을 염원했던 '그리운 금강산'의 작곡가 최영섭(87)옹의 생가도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면, 모진 외세에도 질긴 생명력을 견뎌 낸 탱자나무에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질 정도다.

이 때문일까. 이곳 마을 사람들에게 탱자나무는 각별하다. 나무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자갈을 깔아 보호하고, 밭에 난 잡초보다 나무 주변의 잡초 제거에 더 신경을 쓴다. 오랜 세월 풍파를 견뎌 낸 영감한 나무 탓에 마을이 융성하고 자손이 번창한다 믿기 때문이다.

누군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탱자나무를 가리키는 표지석에 한글로 '탱자나무'라 쓴 것이 마냥 정겹게 느껴진다.

지언테 기자 jus216@kihoilbo.co.kr



1 강화도 화도면 사기리 135-10번지에 위치한 탱자나무. 2 탱자나무 열매는 매년 가을이면 노랗게 익어 간다. 3 천연기념물 지정을 알리는 표지석에 한글로 적힌 '탱자나무' 글씨가 인상적이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도내 관광안내소 허술한 통역서비스에 외국인들 '진땀'

에버랜드는 중국어·민속촌은 영어통역만 된다고?

37곳 대부분 외국어 하나씩만 서비스... 안내 불가능한 곳도 있어 예산 탓 언어별 직원재용 어렵고 기준도 없어... 관광객 불편 가중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주요 관광지 에 설치한 관광안내소가 제대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관광안내소 총 37곳이 설치돼 있으며, 이곳마다 1~3명씩 직원들이 배치돼 있다. 이들은 국내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소와 공연 예약, 지도 안내 등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대부분 외국어 통역 능력과 상관없이 배치되고 있다.

안내원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으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관광객들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

용인 한국민속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민속촌 입구는 중화권이나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였으나 매표소 앞에 설치된 용인시 관광안내소는 영어 통역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 관광객들은 관광안내소 안내원에게 서툰 한국어와 손짓·발짓 일명 보디랭기지로 무언가를 물어봤지만 안내원은 한국어와 영어 등을 활용해 안내해 주는 게 전부였다.

특히 동두천 소요산과 안산 대부도, 안성시·의정부시,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 광명시 관광안내소는 아예 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

지난해 도내 지자체를 방문한 총 외국인 관광객은 295만 명으로 중국인·일본인·미국인 등 주요 3개국이 전체

72.4%인 213만5천 명을 차지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내 지자체들이 관광안내소 통역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만 가중되는 꼴이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경기도는 민낯이 드러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캐나다에서 온 조나단 쇼트(27)씨는 "관광안내소에서 통역 가능한 외국어가 적어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제한적이라 불편이 많다"며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의 언어역 안내봉사자를 기본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영어·중국·일본어 모두가 가능한 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고, 각 언어별로 3명씩 뽑자니 예산 부담이 크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최소 2개 국어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봉 기자 bong@khihoilbo.co.kr



아빠 무릎 타고 가르르 연일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휴일인 21일 인천 중앙공원 본수광장을 찾은 다문화 가족이 분수 사이를 다니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민규 기자 cmg@khihoilbo.co.kr

노래방 여종업원 성폭행 후 잔혹 살해 SNS 사진 게시한 혐기 20대 '무기징역'

자신이 성폭행한 노래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뒤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한 남성이 범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24)씨에게 무기징역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세숫대야에 머리를 억지로 넣어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또 그 시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였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백 씨가 청구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9명 중 6명은 무기징역, 1명은 징역 30년, 2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각각 냈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악귀 씌었다... 친딸 죽인 어머니와 오빠

애완견의 악귀가 딸에게 씌었다는 이유로 친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어머니와 오빠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지난 20일 살인 등 혐의로 어머니 A(54)씨와 공범인 아들(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딸(25)을 살해하기 위해 기르던 애완견도 아들 및 딸과 함께 '악귀가 들었다'는 이유로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도 "동생에게 악령이 씌었다"며 A씨와 비슷한 진술을 했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hihoilbo.co.kr

세월호 참사 발생 2년4개월...

단원고와 이별한 '기억교실'

학생책상 358개·의자 363개 등 안산교육지원청 별관 임시 이전 10월 중순께 일반에 공개 예정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사용하는 '기억교실'이 참사 발생 2년 4개월 만에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임시 이전됐다.

21일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중고인평화회의(KCRP)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전 작업을 통해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옮겨진 물품은 학생용 책상 358개와 학생용 의자 363개, 기밀이 책상 26개, 교무실 의자 11개, 교실 교탁 10개, 교무실 책상 12개 등이다.

미수습 학생 4명의 물품은 단원고에 남았다.

20일 기억교실 이전에 참여한 자

원봉사자들은 단원고 2~3층 교실에 있던 학생과 교사의 개인 유품을 가로 30cm×세로 50cm 크기의 종이상자에 담아 학교 운동장에 대기 중인 4.5t 무전동 트럭 6대에 옮겨 실었다.

이후 오후 3시 20분께 단원고에서 1.3km 떨어진 안산교육지원청 별관까지 '다짐의 행렬'이 시작됐다.

개인 유품상자 이송에는 256명이 나섰다. 이는 단원고 희생자 262명 가운데 미수습 학생 4명과 교사 2명을 제외하고 사망이 공식 확인된 희생자를 의미한다. 예술인 20여 명이 복과 징을 치며 앞장섰고, 1~10반 순서대로 유품 상자를 든 희생자 유가족과 지인 및 자원봉사자들이 뒤를 따랐다.

30여 분 만에 도착한 물품들은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마련된 지정 교실로 옮겨졌다.

21일에는 기억교실의 질판과 계

사판, TV, 사물함, 청소도구함 등의 물품이 이송됐다.

물품이 옮겨진 안산교육지원청 별관 1층에는 1~4반, 2층은 5~10반과 교무실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45일 일정으로 옮겨진 물품과 교실의 재현 작업을 진행한 뒤 10월 중순께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 2018년 9월까지 '4·16 안전교육시설'이 완공되면 다시 옮겨 영구 보존할 방침이다.

한편, 19일 밤에는 단원고 운동장에서 기억교실 임시 이전 전야제 '기억과 약속의 밤' 행사도 열렸다. 이날 오후 7시 40분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전야제에서는 유가족의 발언에 이어 희생 학생들의 생전 모습 등이 담긴 영상 상영과 가수 이상은·자전거 탄 풍경 등의 추모공연, 나희덕 시인의 추모시 낭송 등이 펼쳐졌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현금 수송차량 1억 원 도난 사건... 범인은 차량 경비원 10대 들

현금수송차량 경비원들이 근무 중 차량에 실린 1억 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21일 특수절도 혐의로 이모(19)씨와 박모(1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금수송차량 경비원인 이 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께 광명시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주변에 정차해 둔 현금수송차량에서 1억 원이 든 현금가방을 훔쳐 달아나

이 중 50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동료 1명과 함께 화상경마장 현금인출기에 현금을 입금하려 갔다가 박 씨가 다른 동료와 함께 입금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씨가 현금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단초 이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가 이 씨와 박 씨가 범행 방법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던 박 씨를 긴급체포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hihoilbo.co.kr

오산지역 유치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 보건당국 조사 착수

오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 24명은 지난 17일부터 설사와 구토 및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학부모 등은 유치원이 의심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17일 점심으로 제공한 콩국수에 문제가 있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hihoilbo.co.kr

오늘의 날씨 8월 22일(월)

해돋이 05:54 | 달뜨기 21:46
해질 19:15 | 달지기 09:51

카페로 피서
가끔 구름 많겠음. 아침 최저기온 21~26도, 낮 최고기온은 32~34도 분포.

바다날씨 (오전)			강수량률 (%)		
지역	풍속	파고	지역	오전	오후
서해 북-북동	5~8	0.5~0.5	인천	10	20
남해 북동-동	6~9	0.5~1.0	수원	10	20
동해 북동-동	7~12	1.0~2.0	동두천	10	20
			이천	10	20
			양평	10	20
			강원	10	20

제공 Kweather www.630.co.kr

유람선, 도선 탑승시 신분증 확인제도 시행 (시행일 2016. 1. 25.)

신·시·모도 장봉도 여행시 신분증 꼭 지참

탑승객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이용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5조)

구분	신분증 인정범위	대체 가능 신분증 등
일반인 (대학생포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 내 여권, 수상레저면허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 건강보험증, 국가공공기관 발행 자격증, 지자체 발행 도서인 전자 인증카드,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학생증,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해당지역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모바일 신분증
초·중·고등학생	주민등록증, 학생증, 유효기간 내 여권, 국가공공기관 발행 자격증, 청소년증, 지자체 발행 도서인 전자인증카드,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건강보험증, 학교발행 '신분확인증명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해당지역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	모바일 신분증, 승선신고서 비교란에 보호자(부모, 친척, 교사 등) 성명기재확인
군인	주민등록증, 징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부대장 발행 신분확인증명서, 사관생도 학생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 내 여권,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등	모바일 신분증, 승선신고서 비교란에 동행 대표(내국인 또는 외국인 대표) 성명기재확인
미취학아동 (유아포함)	유효기간 내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건강보험증, 해당 지역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바일 신분증, 승선신고서 비교란에 보호자(부모, 친척, 교사 등) 성명기재확인

* (인정하지 않는 신분증의 예) 사원증, 각종사장이 부착된 신분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 기타 민간자격증 등

<단체승객 승선권 발급 절차>
- 20인 이상 단체 승객이 개별 또는 대표자 일괄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미리 작성 또는 현장에서 작성된 승선신고서를 사업자가 확인, 승객인원 파악 후 승선 *단체 일괄 확인시 신분이 불일치한 승객은 개별 신분증 확인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847번길 55 문의전화 ☎032)751-2211

세종해운(주)

“기업의 응원, 올림픽 무대에서 보답할게요” 부평구 고교서 결핵환자 1명 발생

‘피겨 셋별’ 도지훈, 인천 아마추어 최초로 기업 지원

“누군가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지요. 조금은 부담일 수 있지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2의 김연아”를 꿈꾸고 있는 도지훈(13·옥련중)양이 인천에서 첫 번째 기업 지원을 받는 꿈나무가 됐다. 그는 반드시 올림픽 정상에 서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유치원 시절 TV에서 김연아의 화려한 피겨스케이팅을 보고 처음 스케이트를 타기 시작했다는 도지훈은 서울에서 초교 시절을 보낸 후 인천의 중학교(옥련중)로 전학을 왔다. 현재 선학국제빙상경기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그는 초교 때부터 신체적 조건과 예술성, 표현력 등에서 탁월해 국제 대회에 나가도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았다.

국내 주니어에서는 견줄 선수가 없지만 시니어 부문 나이(만 16세) 제한으로 당장 내후년 평창 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없다.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ISU 챌린저 FBMA Trophy AN노비스 부문’ 준우승을 차지해 국제 무대에서도 이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도지훈은 다음 달 멕시코에서 열리는 ISU 챌린저대회와 10월 중 합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느라 여름 방학 내내 빙상에서 지냈다.

이런 도지훈의 모습을 지켜보던 휴양콘도 운영 대기업 ‘썬대명홀딩스’가 그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대명홀딩스는 올해 아이스하키팀 ‘대명킬러웨이즈’를 인천 연고로 옮겼다.

대명홀딩스와 같은 기업이 지역 꿈나무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마추어 선수로 동·하계 종목을 통틀어 도지훈이 기업 지원을 받는 제1호 선수가 된 것이다.

도지훈과 대명홀딩스를 연결시킨 인천빙상경기연맹 조성만 실무 부회장은 “앞으로 스포츠는 선수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기업 없

콘도 기업 ‘대명홀딩스’ 후원 초교 때부터 표현력 등 탁월 ISU 챌린저 FBMA 준우승 등 국제 무대서 실력 인정 받아

성장하기 힘들다”며 “도지훈이 그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린 지훈이가)부담은 되겠지만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한다면 후원기업은 물론 자신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명홀딩스 관계자 역시 “기업이 미래 꿈나무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금은 지훈이가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후원자 역할에만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7일 선학국제빙상경기장에서는 대명홀딩스 소속 아이스하키팀 ‘대명킬러웨이즈’의 올 시즌 개막전에 앞서 도지훈의 오프닝쇼가 예정돼 있다.

최유태 기자 cyt@kohoibo.co.kr
사진:최민규 기자 cmg@kohoibo.co.kr



피겨스케이팅 선수 도지훈(옥련중 1년)양이 선학국제빙상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의심환자 분류 조사 실시 90여 명은 내일 정밀검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해 질병관리본부와 인천시교육청이 추가 확산 방지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부평구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17)군이 지난 17일 결핵 환자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이달 초 학교 차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결핵으로 의심돼 곧바로 병원 정밀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17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등교 정지된 상태다.

질병관리본부는 결핵 확진 신고를 받은 다음 날인 18일 의심환자 분류를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A군의 접촉 범위 안에 포함된 1학년 학생들과 교사 등 90여 명은 23일 정밀검진을 받을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결핵으로 확진 받은 뒤 완치될 때까지 등교 정지를 원칙으로 한다”며 “당시 건강검진에서 A군을 제외하고 1학년 중에는 결핵으로 의심되는 학생이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정밀검진이 예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연 기자 khy@kohoibo.co.kr

도시철 2호선, 20대 남성 선로 뛰어들어 21분 운행 중단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선로에 20대 남성이 무단 침입해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일 오후 9시 40분께 2호선 가정중앙시장역 중앙대피로에서 A(29)씨가 발견돼 검바위역~가정중앙시장역 4개역 열차 운행이 21분간 중단됐다고 21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열차를 타고 가던 승객이 선로에 사람이 있다고 신고해 전력 공급을 중단한 뒤 안전요원을 출동시켜 이 남성을 구출했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정강이뼈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공사는 선로 등 통제구역을 무단 침입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각 역사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침입 경로 등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ohoibo.co.kr

“용돈 안준다”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10대 구속영장 조울증 치료 병력 있어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PC방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A(14)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정오께 남동구 한 원룸에서 아버지 B(53)씨에게 용돈 2천 원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밥상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평소 척추협착증과 뇌병변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아들의 폭행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아버지를 폭행한 뒤 1시간이 지나 자신의 집 근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오후 4시 넘어 귀가했다.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1시간 20여 분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A군이 귀가 후 1시간 동안 증거를 숨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B씨와 단둘이 살고 있었으며, 지난해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장기간 결석으로 유급했다.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2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박은빛 인천기자 ohvit@kohoibo.co.kr

단독주택에 인접해 공동주택 지은 건물주 법원 “일조권 침해... 1230만 원 배상하라”

남양에도시형생활주택을 지어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단독주택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단독주택 소유자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진)는 단독주택 소유자 A씨가 남쪽 방향에 맞닿아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천2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께 남구 주안동 자신의 단독주택에 인접해 B씨가 지은 도시형생활주택 때문에 기존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됐고, 소음공해 및 자녀에 대한 피부병 발생 등 생활환경 악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A씨가 스스로 단독주택 1층 처마를 설치해 햇빛을 차단했던 점을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시 감경 요소이며, 조망권은 법률상 보호받지 않는 조망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맞섰다.

재판부는 “B씨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3층 이하로 줄였더라면 침해의 정도가 60.5~91.4%(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감소율) 수준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도 침해를 최소화하거나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망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와 소음공해, A씨 자녀에 대한 피부병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창호 기자

관객 모을 기회 ‘사랑티켓’ 사업 인천 민간공연단체 반응은 ‘글썸’

올해 지역 작품 43건 중 민간 출판작 11건에 불과... 참여도 저조

인천의 민간 공연단체들이 24세 이하 65세 이상의 공연 관람을 돕는 사랑티켓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사랑티켓 예매 홈페이지에 등록된 인천지역 공연·전시는 총 13건으로, 이중 민간 단체의 공연은 단 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등록된 2건도 인천이 아닌 타 지역 민간 단체의 출판작이다. 결국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인천서구문화회관 등 모두 지자체와 관련된 기관들의 공연만 있을 뿐 민간 단체의 공연은 없는 셈이다.

또 올해 사랑티켓 사업에 참여한 인천지역 작품은 총 43건으로, 이중 민간 공연단체의 출판작은 11건

으로 조사됐다.

한 공연기획자는 “단체 관람이 많은 아동극의 경우 관객몰이에 성공하기 쉽다”며 “사랑티켓에 작품을 출품해 실적을 확보한 공연단체가 전국에 여럿 있다”고 말했다. 또 “인천지역 사랑티켓 공연 중 상당수가 타 지역 단체의 출판작이다”라며 “인천의 민간 공연단체 상당수가 가만히 앉아 영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셈”이라고 비꼬았다.

한 문화예술단체 관계자는 “사랑티켓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복잡한 작품 선정 절차를 통과해 얻는 초기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면서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생존의 발판을 직접 마련하려는 민간 공연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김경일 기자 kik@kohoibo.co.kr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외벽 시공전

www.IPALG.co.kr

한국영양개발연구원 고시 제2009-24호에 의거한 방염성능시험 합격 제품!

5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불이 시트를 타고 번져 들어가지 않는 실험 동영상 전시

*실제시공현장: 충북 옥천문화원

외벽 시공후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외벽 디자인 홈페이지 패턴카탈로그에서 만나보세요!

건축 내외장재 패턴 디자이너 **JAN MENDINI**

중합 특허방수 전문회사 **이파엘지**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DESIGN-COLLABORATION

가치상승

2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실내 디자인 홈페이지 패턴카탈로그에서 만나보세요!

외벽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이너 잔 멘디니와의 콜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험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4818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일복합시트 방수시스템

실내 아트패션시트 공방이 결로 단열시스템

- 본사 자체 개발 연구 제품으로 결로방지, 곰팡이 제거문제 해결
- 탁월한 단열효과, 보온능력으로 냉난방비 절감효과
- 음이온 기능으로 새집 증후군 예방효과
- 2천여가지의 다양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
- 화재에도 불이 번지지 않는 난연형 시트

실제 사용사례 01
충북 제천 향동초등학교 시공 전(아래), 시공 후(위)

실제 사용사례 02
경북 경주 삼가중학교 시공 전(아래), 시공 후(위)

5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불이 시트를 타고 번져 들어가지 않는 실험 동영상 전시

아파트 실내 결로 곰팡이 제거 시공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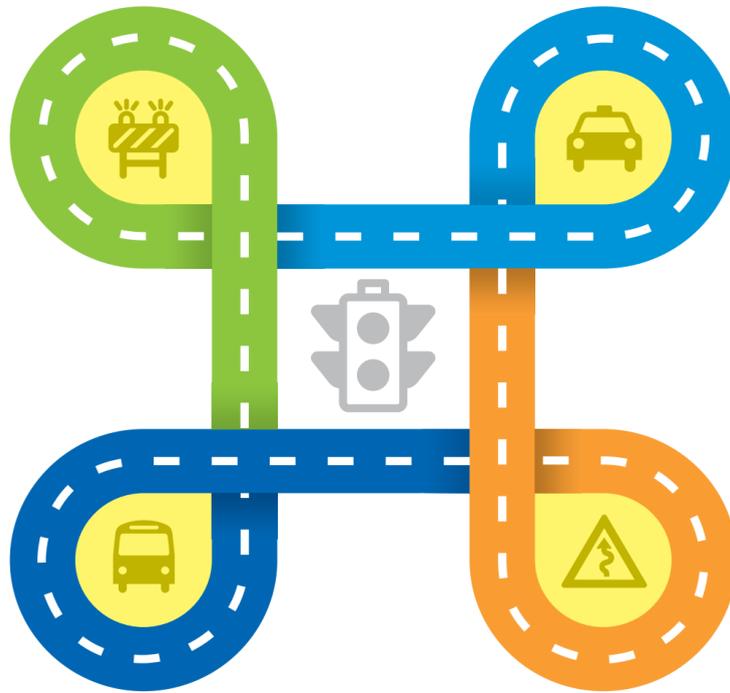
결로와 곰팡이 없는 집에서, 삶의 여유와 행복을 누리세요!

블로그 <http://blog.naver.com/waterproof01>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인천·부천 (032)471-6020	안양·안산 (031)422-1237	과천 (02)502-0494	안성 (031)676-2885	구리 (031)567-5576	동두천 (031)861-5576	광주 (031)767-0470
남수원·화성 (031)233-8061	고양·일산 (031)907-6029	광명 (02)2625-7904	의왕 (031)241-6921	포천 (031)531-5567	김포 (031)907-6029	군지입 (031)243-1728
북수원 (031)241-6920	의정부 (031)872-5576	성남 (031)733-4416	평택 (031)657-0423	양주 (031)842-5576	용인 (031)322-7751	가평 (033)243-1728
양평·용문 (031)771-7782	남양주 (031)594-4416	하남 (031)734-4417	오산 (031)372-0893	파주 (031)947-5576	이천 (031)636-7783	춘천 (033)241-8954

안전한 · 편리한 교통, 살기좋은 경기



2016 경기도 미래첨단 교통안전 EXPO

2016. 9. 1(목) ~ 9. 2(금)
킨텍스 제1전시장 Hall 4

전시제품

※ 전시회 및 세미나 현장 무료 등록

교통 신호	보행자 작동 신호기, 보행신호 음성안내장치,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순차점멸신호기, LED안전유도블록 등
안전 표지	태양광 도로표시등, 야간 안전표지, 태양광 LED 도로표지등, 시선유도봉, 볼라드 등
도로안전시설	방음벽, 도로분리대, 도로열선시스템, 안전 그레이팅, 카스토퍼, 태양광 경보등, 차량감지기, 차선도색기, 제설제 등

학술 세미나 스케줄

9월1일	14:00 ~ 15:20	세션1.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분석 및 산업동향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계획과 비전 - 서울대학교 김재환 박사
	15:40 ~ 17:00	세션2. 미래 교통안전 혁신 방향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안전 혁신 - 자동차부품연구원 유시복 센터장

부대행사

- 어린이를 위한 3D 교통안전 체험버스, 자동차충돌체험
- 어르신들을 위한 교령자 인지기능검사 체험버스
- 일반인을 위한 음주운전 시뮬레이터, 에코드라이브 시뮬레이터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차량 전시

교통안내

- 지하철 : 3호선 대화역 1, 2번 출구 도보 10분 / 5번 출구 마을버스 39, 82, 89번
 - 버 스 : 72, 150, 707, 770, 870, 1000, 1500, 2000, 3000, 3300, 8880, 9700, 9707, M7106 / 도시형 버스 : 88, 150, 200, 900, 8109, 8407
 - 자가용 : 네비게이션에 '킨텍스 제1전시장 주차장' 입력
- ※ 자세한 내용은 포털사이트에서 "교통안전 엑스포" 를 검색

교통안전 의식제고 및 확산을 위한 대국민 프로젝트!



엑스포 사무국 TEL. 031-995-8283 FAX. 031-995-8785 E-mail. ts2016@kintex.com